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MAY
2015
VOL.37
senior.chosun.com

Come Inside

2015 바젤월드에서 만난
하이엔드 워치 트렌드
50대 몸짱 이현아의 도전과 성공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대한항공이 함께하는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사연 공모에 뽑힌 한 커플에게
캐나다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BODYFRIEND
Pharaoh

바디프랜드 파라오



〈시니어조선〉·캐나다관광청·대한항공이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꿈의 여행지, 캐나다로 떠나는 두 번째 신혼여행!

오늘 아침, 옆에 있는 그분께 사랑한다고 말하셨나요? 아니면 수십 년째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어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옆에 있어주어 고맙다고요. 시니어라면 누구나 긴 세월 동고동락한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 그간의 고생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과 대한항공이 깜짝 여행을 선물할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 하는 곳으로 꼽는 꿈의 여행지 캐나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가득한 캐나다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등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의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사연 공모를 통해 뽑힌 한 커플에게 캐나다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 자격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액티브 시니어 커플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remindhoneymoon@gmail.com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편집부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리마인드 허니문 여행 응모' 표기)

여행 지역 캐나다

여행 시기 2015년 6월 말 ~ 7월 초

신청 기간 2015년 3월 30일(월) ~ 6월 15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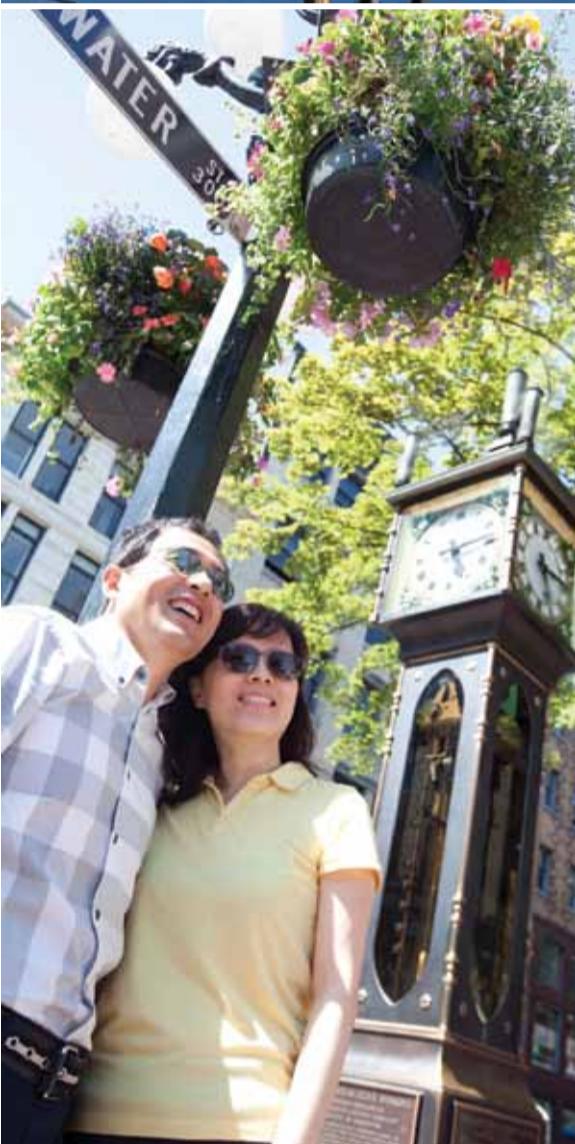
당첨자 발표 2015년 6월 24일(수) 〈시니어조선〉 7월호 및 senior.chosun.com 홈페이지 개재, 개별통지

지원내역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부분적으로 제공)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기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기타사항 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기사의 초상권 및 저작권은 〈시니어조선〉 · 캐나다관광청이 갖습니다.

이벤트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08 홈페이지 www.keepexploring.kr 여행상품 문의 02-733-7790

협찬 대한항공(kr.koreanair.com),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www.helloBC.co.kr), 온타리오 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KOREAN AIR

SUPER NATURAL
BRITISH COLUMBIA
+ CANADA

ONTARIO
CANADA

Canada
keep exploring



Inside

VOL.37 MAY 2015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시니어조선>

06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08 Mirror Sunglasses

선글라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햇살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금,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다면 미러 선글라스에 주목하라.

10 Green Day

싱그러운 5월, 집 안 분위기를 상큼하게 만들어줄 리프레시 컬러는 바로 '그린'이다.

18 50대 몸짱 이현아의 다이어트론

운동으로 몸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었다는 50대 몸짱 이현아 씨를 만났다.

20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추천하는 명품 트레킹 코스, 평화누리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손잡고 2015년을 맞아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일원을 걷는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를 개최한다.

22 피아제코리아 정희정 지사장의 베킷리스트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현재 칼럼 'CEO의 베킷리스트'. 그 두번째 주인공은 피아제코리아 정희정 지사장이다.

24 2015 바젤월드에서 만난 하이엔드 워치 트렌드

바젤월드 2015를 통해 살펴본 2015년 시계 트렌드와 주요 브랜드의 신상품을 소개한다.

28 2015 서울 모터쇼 生生 리포트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15 서울모터쇼'. 자동차 마니아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현장을 살펴본다.

32 <시니어조선>·캐나다관광청·대한항공과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대한항공이 2015년 경이로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캐나다로 독자를 초대한다.



바디프랜드 파리오

절대적인 존재감, 파리오. 바디프랜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골드스킨의 신비로운 카리스마를 더해 탄생한 신작품이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터치에 첨단의 기능까지 원벽한 조화를 이룬 또 하나의 작품이다.

문의 1600-2225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PARTN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hw@chosun.com
객원기자 김성호 sh.kim@yourstage.com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마이팅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학사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어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삼성 및 경기 분당의 변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인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캡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34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펼쳐지는 곳, 아만리조트

한국 고객을 알기 위해 방한했다는 아만리조트 총지배인 3인을 만나 아만 리조트만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36 초저금리 시대, 안정과 수익을 모두 원한다면?

기준 금리가 1%대, 전문가가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1금융권 활용법을 알려준다.

38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과정'

(주)시니어파트너즈 앙코르스쿨 '생애재설계 과정'과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과정 4기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40 추상과 실경을 넘나든 한국화가 송영방

우현 송영방 화백의 등단 55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송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본다.

41 100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숨은 명작 <이영녀>

탈고한 지 100년이 다 돼서야 무대에 오르는 희곡 <이영녀>와 그 주인공이 겪어야 했던 시대와 현실의 무게에 대하여.

42 이달의 정보

칸국제영화제를 위한 쇼파드의 그린카펫 컬렉션, 클럽메드의 여름휴가 빅 보너스 프로모션, 히몰라의 리클라이너 체어 코지풀 2.0, 버버리의 스몰 엠보싱 체크 가죽 클러치백 등을 만나보자.





MARSHAL
PREMIUM GOLD EDITION V5



편안한 스윙
정확한 방향성!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의 상징!
MARSHAL!



CHAMPAGNE

프리미엄 샴페인 뉴발 르로아 국내 론칭

와인 마니아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제품보다 소규모 와이너리에서 한정 생산되는 개성 넘치는 와인을 찾는다. 하지만 샴페인의 경우 국내에 소개된 종류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세계적인 프리미엄 와인 뉴발 르로아(Duval Leroy)가 국내에 론칭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뉴발 르로아는 15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닌 최고급 샴페인으로, 포도 재배부터 생산까지 100% 독립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 미술관 스타 레스토랑의 세프 소믈리에가 선택한 명품 샴페인이다. 국내 론칭과 함께 4월 27일부터 공연되는 프랑스의 3대 쇼 중 하나인 '크레이지 호스 파리'의 공식 샴페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국내 소개되는 뉴발 르로아의 제품은 브뤼(Brut), 퀴비 MOF 소믈리에, 브뤼 프리미에 크뤼, 로제 프레스티지 프리미에 크뤼, 팜므 드 샴페인 2000 등 총 5종이다.

문의 02-403-4388 Writer 황정원

▶ 뉴발 르로아의 최고급 빈티지 라인인 '팜므 드 샴페인 2000'



FASHION

빅토리아 슈즈 100주년 기념 전시 '100 Years of First Love'

심플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빅토리아 슈즈(Victoria Shoes)가 2015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빅토리아 슈즈는 1915년, 스페인 북부의 작은 마을인 라리오하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신발제조업을 하던 사업가 그레고리오가 사랑하는 아내 빅토리아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100주년이 되는 올해, 대림미술관 옆 갤러리 '빈집'에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00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황혼기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전시된 룸에서는 각 시기별 감성을 상징하는 인테리어와 빅토리아 슈즈를 함께 매치해 브랜드의 캐릭터와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1544-5995 Writer 이은정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ART

현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베이징 아트 투어

매년 6월이면 스위스에서 최대의 예술 축제인 아트 바젤이 열린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아시아 최대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이 개최된다. 예술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아트 페어들이다. 특히 중국에는 뉴욕, 런던 못지않은 세계적인 예술시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홍콩, 상하이, 베이징이 그 주인공들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돌풍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베이징이 아트 투어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안아트컨설팅에서 기획한 베이징 아트 투어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큐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예술가들의 작업실 탐방을 비롯, 798 예술특구의 UCCA 미술관, 새로 생기는 민생미술관, 차오청디 예술특구의 주요 갤러리 탐방 등 베이징의 예술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전 일정 이안아트컨설팅 김영애 대표의 해설이 함께하며, 현지 큐레이터가 동행해 중국어 통역과 중국문화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의 02-2234-7714 Writer 황정원

BEAUTY



비오템 옴므, 수분이 72시간 지속되는 '아쿠아파워 수분 젤 크림'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건조하고 모공이 커 수분 유실이 많다. 따라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남성 전용 라인의 제품을 챙겨 바르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보습이 특히 중요하다. 비오템 옴므의 No.1 수분 라인인 '아쿠아파워'에서 선보이는 '수분 젤 크림(Aquapower 72H Concentrated Glacial Hydrator)'은 남성만을 위해 탄생한 신개념 수분 크림으로, 강력한 수분 지속력을 자랑한다. 극한의 남극 빙하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인 P. 안타르тика 성분을 담았으며, 바르는 즉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 속 수분의 증발을 막아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72시간 동안 촉촉함이 지속된다. 끈적이고 번들거리는 사용감을 싫어하는 이들을 위해 피부에 닿는 순간 흡수되는 시원한 쿨링 젤 텍스처로 되어 있어 가볍게 바를 수 있고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을 빠르게 전달한다. 가격(권장소비자가)은 아쿠아파워 수분 젤 크림 50ml, 5만8천원대, 아쿠아수르스 나이트 스파 트리트먼트 50ml, 5만원대. 문의 080-022-3332 Writer 이은정

BOOK

시니어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가정을 달을 맞아 몸도 마음도 분주한 5월, 시니어의 삶을 차분히 계획할 수 있는 신간이 쏟아져 나왔다. 〈빅 시프트〉(마크 프리드먼 지음, 한주형·이형중 옮김, 한울, 2만6천원)은 100세 시대를 맞는 중년들을 위해 새로운 인생지도를 제시한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모든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다. 지금 당장 창업과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시니어라면 〈브라보! 시니어라이프〉(양코로 커리어 지음, 이마, 1만3천8백원)를 필독할 것.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준다. 〈와튼스쿨 인생특강: 원하는 삶을 살 것〉(스튜어트 D. 프리드먼 지음, 권오열 옮김, 베가북스, 1만5천원)은 세계 최고의 MBA 와튼스쿨의 인기 교수 프리드먼의 토크 리더십에 관한 강의로, 인생의 절정기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길과 삶'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성공보다 힐링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흔이 담긴 시선으로〉(고도원 지음, 해냄출판사, 1만3천8백원)를 추천한다. 우리 시대 영혼의 멘토로 불리는 고도원이 지난 10여 년간 명상센터 '깊은산속옹달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들, 아침편지 독자들과 함께 나눈 인생의 질문과 답변 중에서 가장 공감할 만한 40여 편을 선별해 에세이로 풀어낸 책이다. 〈당신의 엔딩을 디자인하라〉(와카오 히로유키 지음, 홍주영 옮김, 티커스, 1만3천원)와 〈인생의 아름다운 준비〉(새러 데이비드슨 지음, 공경희 옮김, 예문사, 1만4천8백원)는 최근 대세인 '웰다잉'이 이야기한다. 일본 최고의 엔딩디자이너가 40대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유대인 립비가 알려주는 인생의 12월을 맞이하는 지혜에 귀 기울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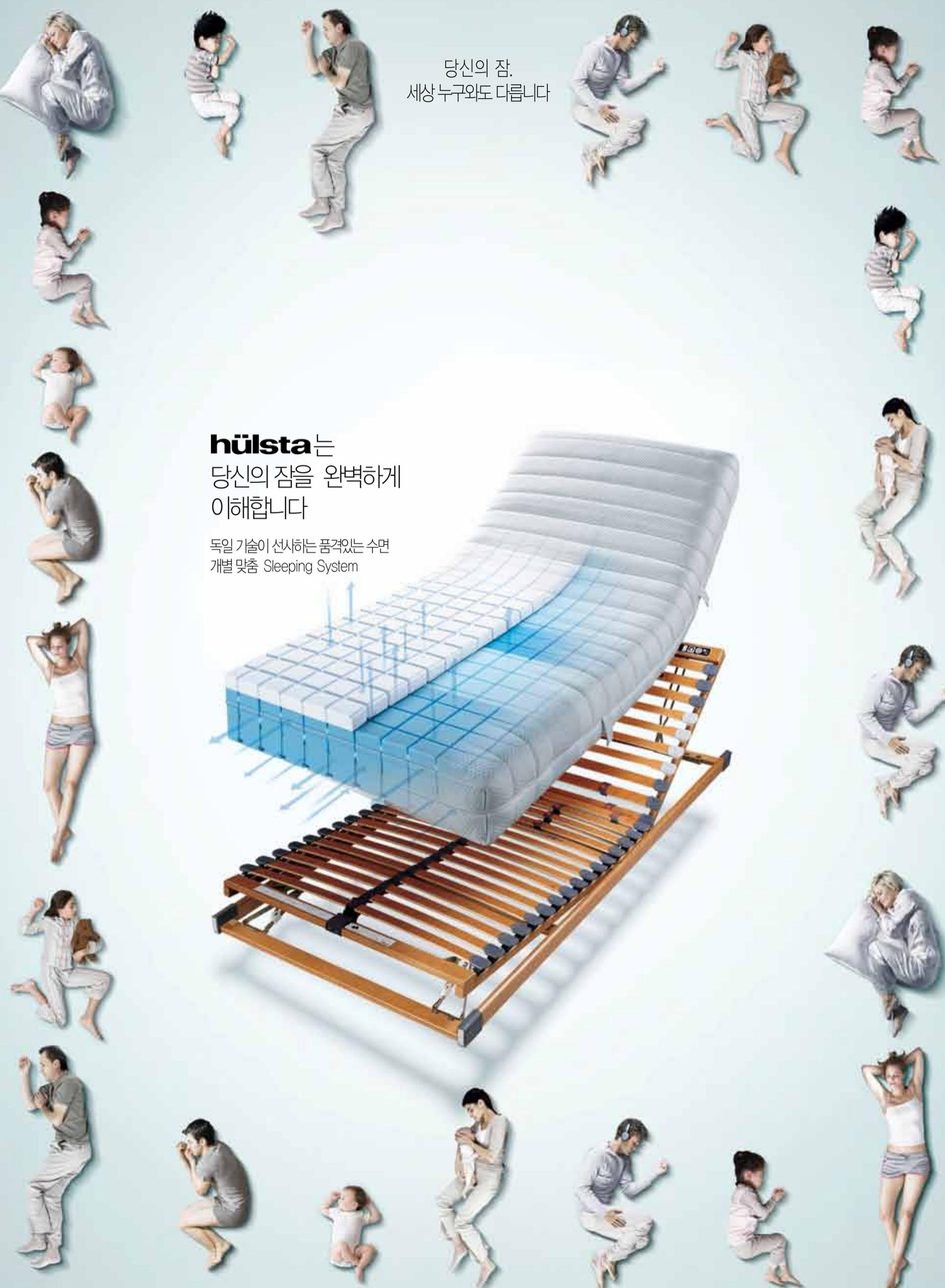
Writer 황정원



당신의 잠.
세상 누구와도 다릅니다

hülsa는
당신의 잠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독일 기술이 선사하는 품격있는 수면
개별 맞춤 Sleeping System



Mirror Sunglasses

선글라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햇살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금,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다면 미러 선글라스에 주목하라.

Writer 황정원 · Photographer 한준호(C. 영상미디어) · Stylist 정소정 · Styling Assistant 유다해

바야흐로 미러 선글라스가 대세다. 그동안 스포츠 고글에 주로 사용된 미러 렌즈가 몇 년 전부터 패션 선글라스의 세계를 조금씩 넘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대부분의 선글라스 매장에 간판 제품으로 진열될 만큼 열풍이 거세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미러 선글라스는 일부 용감한 패션리더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올해는 선글라스 마니아라면 누구나 하나쯤 지녀야 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우선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블랙 프레임에 그레이 컬러의 렌즈로 시크한 멋이 돋보이는 미러 선글라스다. 미러 렌즈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타일로,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다. 보잉 디자인의 스틸 프레임도 추천할 만하다. 여기에 렌즈가 반투명 타입의 투톤이라면 더욱 부담 없다. 최근에는 미러 선글라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반사도나 채도를 낮춘 미러 렌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메탈 프레임은 정장과 캐주얼에 모두 어울리기 때문에 두루 두루 착용하기에 좋다. 조금만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레오파드 패턴의 프레임을 시도해보자. 레오파드 패턴 선글라스는 얼굴과 패션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선글라스 하나만으로도 패셔니스타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컬러가 가미된 미러 선글라스로 팝아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다. 단,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지 않다면 미러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는 가급적 컬러도, 디자인도 심플한 의상을 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위쪽부터

투명한 그레이 컬러의 아세테이트 미러 선글라스는 27만원, **스펙트레 by 씨샵플래그쉽**.

선명한 오렌지 컬러가 돋보이는 투톤 미러 선글라스는 19만5천원, **프로젝트 프로덕트**.

세련된 보잉 디자인의 미러 선글라스는 30만5천원, **빅터앤론프 by 시원아이웨어**.

기본 스타일의 블루 컬러 아세테이트 미러 선글라스는 11만9천원, **트리플포인트 by 비씨디코리아**.

보잉 스타일의 브리지가 인상적인 블루와 그린의 스타일리시한 투톤 미러 선글라스는 16만5천원, **스테판크리스티앙**.

스틸 소재의 편팅 프레임이 독특한 멋을 자아내는 미러 선글라스는 34만원,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by 사필로**.

시원한 화이트 컬러의 그레이 미러 선글라스는 37만원, **자딕앤폴테르 by 디케이**.

레오파드 패턴과 블루 컬러 미러의 대비가 선명한 선글라스는 17만5천원, **제이에스티나×스테판크리스티앙**.

오렌지 컬러가 강렬한 느낌을 주는 미러 선글라스는 22만5천원, **에이글 by 디케이**.

블랙 컬러의 원형 스틸 프레임이 미니멀한 멋을 더하는 미러 선글라스 31만원, **스펙트레 by 씨샵플래그쉽**.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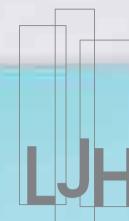
디케이, 프로젝트 프로덕트 02-3446-7725

비씨디코리아, 씨샵플래그쉽 02-3447-7701

사필로 02-514-9006

스테판크리스티앙 02-3442-3012

시원아이웨어 02-540-4723



이지함화장품
LEEJIHAM COSMETICS

365일 피부 지킴이
도심 속 따가운
자외선을 산뜻하게 차단하라



닥터코스메틱 이지함화장품

판매처 : 이지함화장품 쇼핑몰(www.ljhmall.com), 드럭스토어(GS와인스)

이지함피부과 : 강남, 강북, 구리, 구미, 분당, 부산, 이대, 일산, 여의도, 청담, 천호

소비자상담실 : 080-700-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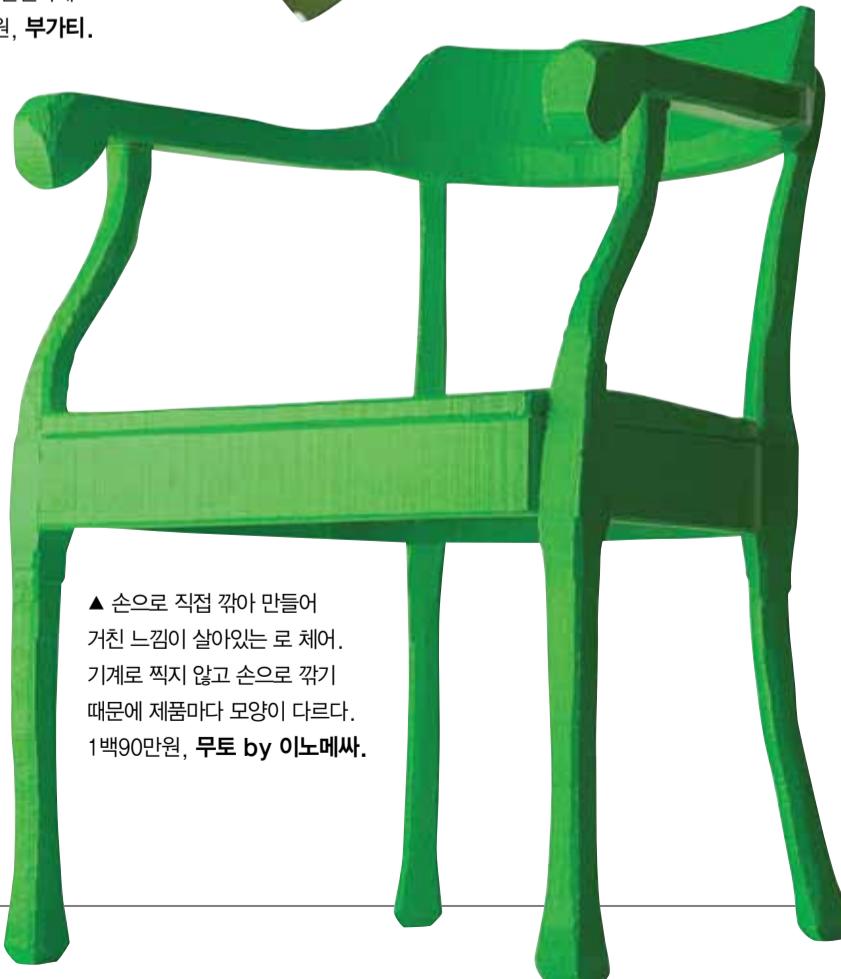
Green Day

강렬한 컬러의 아이템은 무채색으로 가득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싱그러운 5월, 집 안 분위기를 상큼하게 만들어줄 리프레시 컬러는 바로 '그린'이다.

Writer 황정원



◀ 핸드블렌더 에바. 과일 갈기, 미늘 다지기, 크림 휘핑 등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칼날과 별도 보관함이 포함되어 있다. 센서에 손이 닿지 않으면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24만원, **부가티**.



▶ 손으로 직접 깍아 만들어 거친 느낌이 살아있는 로 체어. 기계로 찍지 않고 손으로 깍기 때문에 제품마다 모양이 다르다. 1백90만원, **무토 by 이노메싸**.



▲ 부드러운 질감의 펠트와 재활용 페트병을 소재로 만든バス켓. 잡지 등을 수납하기에 좋다. 15만5천원, **무토 by 이노메싸**.

◀ 북유럽풍 패턴의 목욕 타월. 초극세사 항균 타월로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다. 4만5천원, **리틀스칸디**.



▲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상의 휴먼헤드. 스페인산 제품으로 100% 재활용 유리를 사용해 만들었다. 3만7천원, **V 산 미구엘 by 컬러미스페이스**.



▲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사다리를 오르는 여인의 일러스트가 재미있는 엘사 비스코브 머그. 400ml, 3만3천원, **디자인하우스 스톡홀름 by 이노메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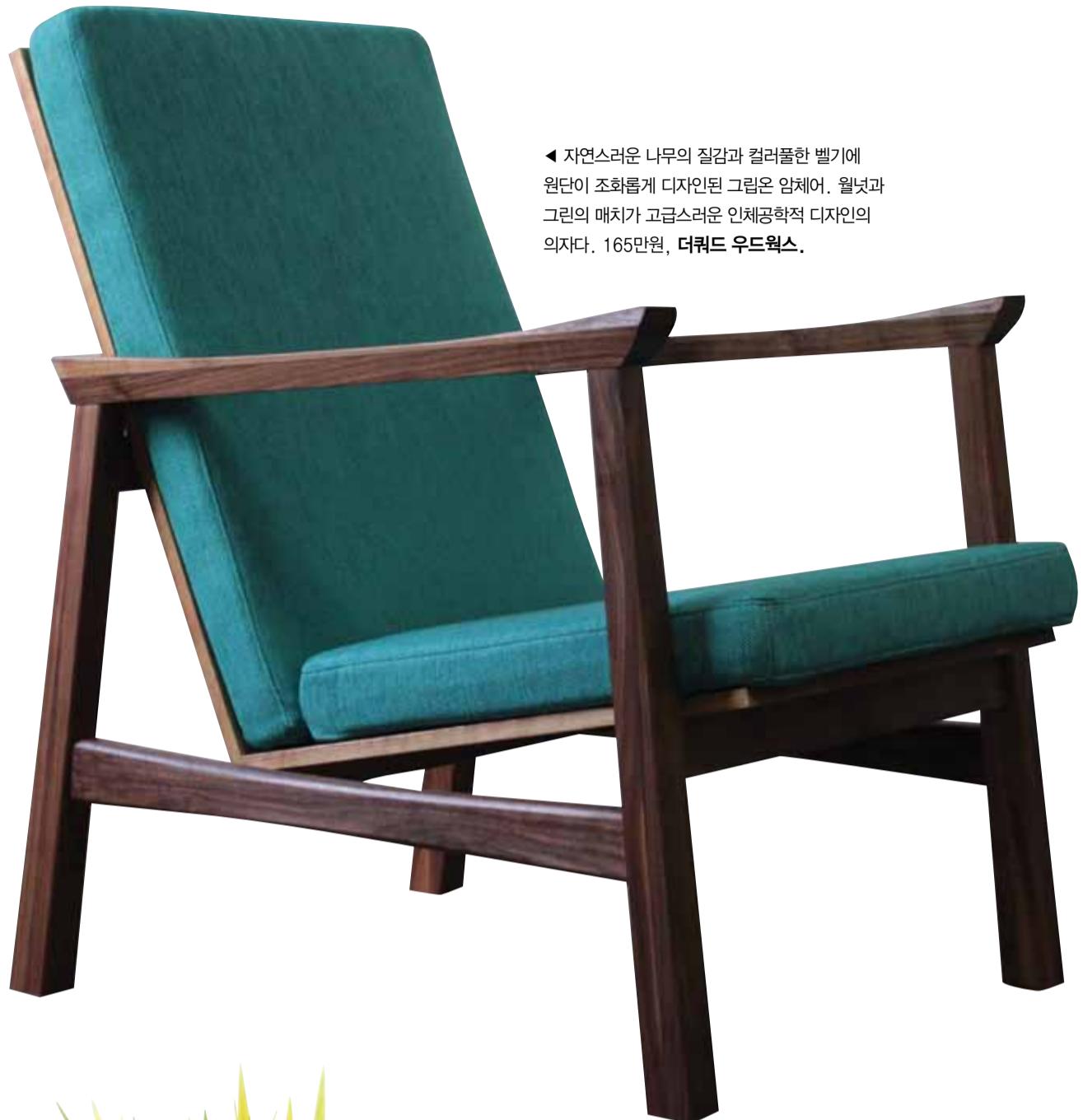
문의
이노메싸 02-3463-7710
리틀스칸디 02-6049-4920
부가티 02-707-4706
컬러미스페이스 02-542-7548
더쿼드 우드웍스 070-7792-5599
러쉬 1644-2357
줌디자인스튜디오 062-530-0306



▲ 선인장 가시에서 착안해 만든 이쑤시개 홀더.
선인장 모양의 용기 머리를 꾹 누르면 윗부분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 있던 이쑤시개가 올라온다.
4만2천원, 에시(Essay) by 이노메싸.



▲ 욕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헤어클렌징바 카마콤바(Karma Komba).
두피를 딥클렌징하고 엉킨 모발이 부드럽게
벗질되도록 하며, 소나무 추출물, 파솔리 오일,
오렌지 오일 등 다양한 성분의 향기가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1만8천3백원, 러쉬.



◀ 자연스러운 나무의 질감과 컬러풀한 벨기에
원단이 조화롭게 디자인된 그립온 암체어. 월넛과
그린의 매치가 고급스러운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의자다. 165만원, 더쿼드 우드웍스.



▲ 사선의 이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기포트 베라.
시간설정, 온도설정이 가능하며, 손잡이에 있는
LED 창으로 온도와 시간을 볼 수 있다. 42만원, 부가티.



▲ 평소에는 풀처럼 화분에 꽂아두었다가
하나씩 뽑아 쓰는 재치있는 디자인의 펜.
포레스트 그린, 스프링 그린, 옐로 그린의
세 가지 색상이 있다. 개당 5천원,
즙디자인스튜디오.



▶ 미니멀한 디자인이 세련된 사이먼트 화병.
라지 9만6천원, 스몰 6만8천원,
무토 by 이노메싸.

Lovely PAPA

온 가족의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바디프랜드와 함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모였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놀아주는 할아버지 추계이.

남자중의 남자지만 사랑이 앞에서는 한없이 딸 바보인 추성훈.

장난기 한 가득 이지만 함께 따라 웃게 되는 귀여운 사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족 사랑을 전하는 바디프랜드의 따뜻한 순간.

문의전화 1600-2225



퍼스트클래스의 감동 그대로 최상의 편안함을 위해
형태와 기능을 최적화한 품격있는 디자인의 팬텀

렌탈가 119,500원(39개월 약정)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카리스마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팬텀 블랙에디션

렌탈가 129,500원(39개월 약정)



슈퍼카를 언상시키는 유려한 곡선, 독보적인 스마트 퍼포먼스로
감각적인 휴식의 시간을 완성하는 렉스-엘

렌탈가 109,500원(39개월 약정) / (예약판매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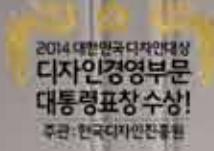
몸을 위한 완벽한 입체프레임, 사용자에 꼭 맞춘 휴먼 인터페이스,
첨단 마사지볼 시스템을 갖춘 카리스마 넘치는 팬텀

렌탈가 119,500원(39개월 약정)



여성의 마음을 잘 아는 슬린원 토리파스트처럼 클래식한 감성을 재해석한 라인과
편안한 깊이를 더하는 걸리가 공간에 기품을 더해주는 레지나

판매가 99,500원(3개월 약정)



**혼수도 예단도,
바디프랜드**

모두를 만족시키는 혼수 아이템은 흔치 않죠.
설레이는 신혼! 더 근사해진 팬텀과 함께하세요.

품격있는 선택, 팬텀 블랙에디션



판권 플렉에디션
월 129,500원 (39개월 약정)

렌탈문의 1600-2225



바디프랜드



BODYFRIEND



이이로부

월 49,500원 (39개월 약정)



이|이|로|보|S

월 59,500원 (39개월 약정)



프레지던트

월 79,500원 (39개월 약정)



프레지던트 플러스

월 89,500원 (39개월 약정)



레지스

월 99,500원 (39개월 약정)



四百

월 119,500원 (39개월 약정)



50대 몸짱 이현아의 다이어트론 중년 건강의 비결은 '근육'에 있다

22세에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46세에 보디빌딩에 도전했다. 지금까지 21개의 보디빌딩 트로피와 상을 받았고, 51세에 모델로 데뷔했다. 운동으로 몸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었다는 50대 몸짱 이현아 씨를 만났다. Writer 장재순

신체 나이 20대, 50대 몸짱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 나이를 말하면 깜짝 놀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 정말 순세 살 맞아요. 아들도 둘인데, 큰아이가 서른한 살이고 작은아들이 스물세 살이에요. 마흔네 살에 운동을 시작해 순세 살이 된 지금까지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167cm, 55kg, 20대가 입는 옷 브랜드의 55사이즈를 입지요. '주부빌더', '50대 몸짱녀', '복근이줌마'… .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불러요.

운동하기 전의 이현아 vs 운동하는 이현아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보통의 주부들처럼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살림만 하면서 우울하게 갱년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전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보디피트니스 선수, 퍼스널 트레이너, 모델, 동기부여 강사, 학생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운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나의 꿈을 쫓으며 살지 못했을 거예요. 30대 남자가 뒷모습을 보고 집까지 따라오는 일도 없었겠지요.(웃음)

운동 및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모두 'kg'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질까?"에만 관심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사이즈'예요. 성공한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을 빼야 맞지요. 그런데 체지방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굽는 다이어트나 유산소 운동만으로 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육 운동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지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몇 kg 감량이 아니에요. 근육을 키워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 운동의 장점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팔다리를 움직이면 근육이 사용돼요. 그것을 조금 더 힘들게 하면 근육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근육 운동을 하면, 무엇보다 아름답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도 쉽고 낙타살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또한 근골격계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 체력도 좋아져요. 저는 1년 365일 스케줄이 빡빡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 소화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체력은 정말 끝내준다"고 허를 내둘려요. 단언컨대, 제 체력의 원천은 뻥뻥한 근육에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식습관은 피부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거든요. 제 동안 몸매와 얼굴은 모두 근육 운동 후에 받은 선물이에요.

40대 이후의 운동법과 주의점

일반적으로 30세가 지나면 특별히 나쁜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노화의 과정이지요.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젊을 때보다 더 근육 운동을 해야 해요. 단,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자기 체중을 이용한 근육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되도록 운동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왜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즐겁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중년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은 뱃살 운동과 엉덩이 운동이에요.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뱃살이 늘어나는데,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근육 운동을 통해 몸의 탄력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게 좋아요. 또한 엉덩이 근육은 미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고 상체의 하중을 받는 부위이므로 중년이라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코어(골반, 허리, 복근을 포함한 중심 근육) 운동과 병행하면 자세는 물론 유통도 좋아져요.

운동이 주는 삶의 선물

제가 브리톱에 쇼트 팬츠를 입고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여성 회원들의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우리는 저렇게 해도 안 돼. 타고나야지." "아휴, 저 힘든 운동을 어떻게 해. 그냥 이 몸으로 살고 말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게 돼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을 한 번 맛본다면 운동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운동이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2주에 한 사이즈 줄이기>

이현아 지음, 비타북스,

1만4천8백원.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탄탄하고 아

름다운 보디라인으로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화제를 모은 50대 몸짱

이현아가 알려주는 다이어트&몸매

관리 노하우. 굽는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만으로 일관하

는 여성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를 조목조목 짚고, 그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책에 소개

된 모든 식단과 운동은 그녀가 오랜 시간 직접 실행하며 효

과를 얻은 것들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2주

에 한 사이즈 줄이기'가 가능해진다.



한결같은 편안함 처음부터 라텍스로 시작하자

이탈리아에서온 프리미엄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라클라우드



Made in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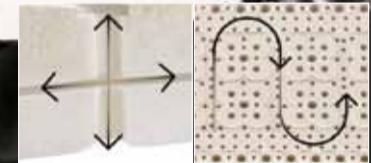
수천년을 이어온 이탈리아 장인정신과 자연의 정성으로 빛은
이탈리아 프리미엄 천연라텍스 라클라우드

천연라텍스의 항균력



천연라텍스만의 초강력 항균력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세균 서식 방지

극대화된 통기성



통기성을 극대화하여 자원이 다른 쾌적한 수면환경을 만드는
프리미엄 스크고학

7 zone system



각기 다른 탄성의 7단계 레이어 존으로 인체의 굴곡을
빈틈없고 흔들림없이 밭쳐주는 정교한 하중흡수 시스템

이태리 직수입 통몰드 100% 천연라텍스 / 렌탈가 19,900원 부터

종류	사이즈	두께	월렌탈료	기간
천연 라텍스(100%)	슈퍼풀트리킹(SUK) / 슈퍼킹(SK) /킹(K) /퀸(Q) /슈퍼싱글(SS)	16 cm 20 cm	천연 Q16 + 프레임 : 30,900원 천연 Q20 + 프레임 : 34,900원	60개월 약정 (의무기간 48개월)
일반 라텍스				

구름위의 달콤한 신혼, 라클라우드

La Cloud
MILANO



렌탈문의 1600-2225 | 수출, 제휴문의 trade@bodyfriend.co.kr

NAVER

라클라우드

▼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추천하는 명품 트레킹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화누리길로 오세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손잡고 2015년을 맞아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일원을 걷는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를 개최한다. 〈시니어조선〉 독자를 초대하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육성으로 전하는 평화누리길의 매력을 들어보자. Writer 황정원

최근 달리기보다 걷기가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부응해 지자체 역시 걷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10년 ‘평화누리길’을 트레킹 코스로 조성, 평소 민간인이 드나들기 어려운 DMZ 일대를 개방하는 등 새로운 걷기 코스를 소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2015년에는 영화배우 조재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총 191km의 12개 코스 전 구간에 걸쳐 종주 투어 행사를 진행하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평화누리길을 알리기 위해 열심이다.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자연과 역사를

평화누리길은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 김포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 4개 시·군을 잇는 우리나라 최북단 트레킹 코스다.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에게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길이자, 사상과 체제의 차이로 가로막힌 철조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공간. 마을 안길과 논길, 제방길, 해안철책, 한강하류, 임진강 등 역사유적이 산재해 시니어 세대에게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신세대에게는 자연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가 깊다. 김포의 문수산성과 대명항, 고양의 행주산성과 호수공원, 킨텍스, 파주의 반구정과 출판도시, 헤이리마을, 연천의 주상절리, 당포성 그리고 로하스파크 등 모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길이 될 것이다.

“191km, 12개 코스 모두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시니어조선〉 독자분들께는 그중에서도 특히 평화누리길 1코스인 염하강철책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군 철책선을 따라 분단의 현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길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달지 않아 빼어난 자연 풍광과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염하강철책길에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말이다. 그는 평화누리길이 지리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명품 트레킹 코스임에도 명성이나 인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행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한다.

“살아 있는 냉전사의 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일원에 조성된 트레킹 코스는 경기도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걷는 중간 중간에 각종 문화유적과 자연 생태환경, 군사시설 등을 바라보며 안보 현실을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숙소와 연계 관광지 발굴 중

경기도는 또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남경필 도지사는 전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분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임진각 관광지 통합 개발은 물론, 제3땅굴, 오두산통일전망대 등과 같이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매력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DMZ-Train과 연계해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등 DMZ안보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번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위한 준비도 척척 진행 중입니다. 숙박이 필요한 외국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DMZ 내 유일한 숙박시설인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운영 중입니다. 캠프그리브스는 6·25전쟁 때부터 50년간 주둔했던 미군부대가 2004년에 이라크로 떠나면서 경기도에 반환된 곳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1사단과 함께 캠프그리브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한 안보 체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3년 12월 정식 개장했고 올해는 특별히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리적, 역사적 독특성을 바탕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상 깊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10월 초에 개최되는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평소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 통제구역 안까지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보자.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2015년 연간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걷기 행사로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걷기 축제다. 4개 시군인 연천, 파주, 고양, 김포시가 참여하며,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영화배우 조재현과 함께 걷는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걷기 행사에는 통일염원 리본달기, 봄바람 바람개비 만들기, 평화누리길 페й스페인팅, 홍보대사와 포토타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해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부하며, 수익금 전체는 모두 비무장지대(DMZ) 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문의 031-956-8310 접수 www.walkyourdmz.com

사랑이가
마시는 물!

**W탄산수기**

월렌탈료 월 5,0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의무기간 48개월)
비고 정수기 구입시 구매 가능

W정수기

월렌탈료 월 14,9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의무기간 48개월)
비고 의무기간 이후 월 6,900원



셀프필터교체로 간편하게!
끼우고 돌리면 끝!
손쉬운 셀프 필터교환



전기로 전자파 걱정없이!
무전원 설계로 전기로 부담없고
안전한 정수기



미네랄 워터로 건강하게!
물은 깨끗하게 정수하고.
미네랄은 살려내는 똑똑한 정수기



탁월한 정수필터성능!
6 STEP 첨단필터로 중금속,
슈퍼박테리아, 유해세균 완벽 제거

매일매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W정수기



렌탈문의 1600-2225 | 수출, 제휴문의 trade@bodyfriend.co.kr

NAVER W 웰니스 정수기 ▾



CEO's Bucket List

피아제코리아 정희정 지사장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연재 칼럼 'CEO의 버킷리스트'.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패션계 '미다스의 손'에서 하이엔드 주얼리&워치 시장의 리더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피아제코리아 정희정 지사장이다. Writer 황정원 · Photographer 조혜원(C. 영상미디어)

하이엔드 주얼리와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피아제. 예술적인 디자인과 대담하면서도 창의력 넘치는 제품은 피아제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주얼리&워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특히 시계는 인하우스 공장에서 본체부터 브레이슬릿까지 100% 제작하고 있어 그 자부심이 남다르다.

정희정 지사장은 패션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릴 만큼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시킨 인물로 우리나라 명품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인공이다. 엔조, 크리스찬 라크르와를 비롯해 코치, 프라다에 이르기까지 한번쯤 국내 명품업계를 휩쓸었던 태풍이 모두 그의 날갯짓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해에서 MCM 컨설팅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요 몇 년 사이 MCM이 중국에서 국민 브랜드로 사랑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4년에 피아제코리아로 부임한 이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정희정 지사장. 치열한 패션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의 경영 철학과 향후 계획, 그리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간직하고 있는 작은 꿈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았다.

여전히 가슴 뛰는 일상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패션계야말로 두근거림이 가득한 곳이지요. 예전에 패션쇼를 보러 파리, 밀라노로 출장을 갈 때면 항상 비행기 안에서 출장 자료를 리뷰하며 다음 날 있을 신상품 론칭에 대한 기대감으로 빨리 해가 뜨길 간절히 바라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아제는 1년에 2회씩 140~200피스의 하이주얼리를 론칭할 만큼,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가득한 브랜드였어요. 피아제 지사장 부임 이후 두 번의 컬렉션을 론칭했는데, 벌써부터 오는 6월에 있을 2017년 신상품 론칭 미팅에 출시될 상품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큽니다. 브랜드 창업자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의 철학인 "Do always better than necessary. –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라"는 말처럼, 창의성과 대담함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바로 브랜드가 140여 년을 건재하며 전통을 이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비단 브랜드뿐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해도 좋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저는 요즘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소통하는 리더십

지사장으로 부임 후 첫해에 가장 먼저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 전임 외국인 지사장과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여유모로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임 후 가장 먼저 전 직원들과 개별 인터뷰를 해서 어려운 점, 필요한 점, 직원들의 생각, 회사에 대한 바람 등 소중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듣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생각하고 시도도 했지요. 그 노력 덕분인지 직원들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느끼고,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매일 머리 맞대고 일하는 회사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사람 사는 맛은 서로 부대끼고, 느끼고, 웃고, 화해하며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글로벌 브랜드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여러 가지 독보적인 장점을 로컬 마켓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일단 시장에 필요한 브랜드의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었고 대세의 흐름을 타서 방향을 전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아요. 경영 비결을 묻는다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명품업계에서 하이주얼리&워치 시장은 일반 패션 시장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리테일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드러진 차이는 계절성이 없다는 점이겠네요. 위치&주얼리는 상대적으로 계절에 대한 구분은 크지 않지요. 요즘 트렌드인 'Slow Culture'에 가장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힐링을 원한다면 바쁠수록 멈추어라

요즘처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적인 순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음악과 미술작품 관람이 큰 치유와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영향이 큽니다. 남편이 제게 준 첫 선물이 에른스트 곤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과 즐겁게 오래 살려면 미술과 음악을 함께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예술을 가까이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것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오페라 감상에 뚝 빠졌는데, 오페라를 관람하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노래하는 재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기가 된다면 소질 유무를 떠나서 성악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참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다' '참 부럽다' '나도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성악에 대한 도전을 살며시~ 저의 버킷리스트에 포함해봅니다.

보다 대중적인 도전곡으로는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1



2

1 피아제의 140년 히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긴 화보집. 대표적인 작품들의 아트워크는 물론 워치메이커로서의 자부심과 탄생 배경, 경영철학, 정인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 작은 시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아제 시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는 제품이다.



“

굳이 버킷리스트라 거창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이뤄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달성과 창작의 기쁨은 인생에 충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

는 지금 한류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11년,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온 가족이 2년간 중국에 갈 기회가 생겨 가장 먼저 중국어학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열심히 해서 중국어 수위평가도 보고, 중국 시장 가서 가격 흥정까지는 가능한 수준은 되었어요. 일단 제가 그리던 광동어는 아니지만 늦게나마 중국어 입문에 성공, 미션 클리어입니다.

이처럼 버킷리스트는 사회 생활이나 일상에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굳이 버킷리스트라 거창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이뤄갔을 때, 거기에서 오는 달성과 창작의 기쁨은 인생에 충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버킷리스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메모하듯, 일기 쓰듯, 하나씩 적어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막연히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이를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피아제

피아제에 조인한 후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피아제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패트리모니 전시(Patrimony Exhibition)를 한국의 전통과 접목해서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제의 빈티지 마스터피스를 아직 국내에 선보일 기회가 없었어요. 피아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를 통해 아직까지 피아제라는 브랜드가 친근하지 않은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정말 재미있는 해가 될 듯합니다. 25년 전 1990년에 론칭해 회전하는 두 개의 링이라는 아주 특별한 콘셉트로 주얼리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포제션(Posession)'이 다시 커다란 주목을 받을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의 신예 연기파 여배우 제시카 차스테인이 올해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되면서 삶을 즐기는 당당한 여성의 대명사로 포제션과 함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제션의 글로벌 론칭 시기인 5월에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피아제의 새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신선한 행사를 여럿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피아제가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regrette rien'도 마스터해보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노래는 꼭 한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정말 노래에 소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곡만 열심히 공략하면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찬송가도 립싱크하는 저희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희망이 생겼던까요? 재미있는 얘기로, 저희 남편은 노래방에 가면 팝송을 한답니다. 영어를 잘해서? 절대 아니죠. 팝송을 틀면 동료들이 가사에 집중하느라 누가 어떻게 노래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름 남편의 사회생활 비법이랍니다. 허하.

버킷리스트는 인생의 윤활유

저는 예전부터 '호기심 천국'이라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많고 공사다망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나 계획을 크게 나이별로 나열해보면, 30살에는 결혼계획을 하고, 32살에는 자녀계획을, 45살에는 회사의 대표가 되고, 50대에는 직접 집을 지어보고, 60살 이후에는 세계일주를 하며 나만의 여행 일지를 남기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40대까지는 감사하게도 굵직한 것들은 달성을 했답니다. 그 밖에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처음으로 달성한 버

킷리스트는 '부모님을 떠나 독립생활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은 대학 2학년 때 이루어졌죠. 당시 3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수를 벌미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독립하면 하고 싶었던 많은 것을 해봤고, 처음으로 김치도 담가봤어요. 그 때 이후 결혼할 때까지 꼼꼼없이 부모님 그늘에서 지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짜릿한 일탈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 소녀시절의 버킷리스트는 '중국어 배우기'였어요. 요즘은 K-팝과 한류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가 사춘기였던 시절에는 홍콩 누아르가 대세였거든요. 홍콩의 4대천왕이 인기 절정이었고, 장국영, 양조위, 곽부성, 유덕화 등의 영화를 보기 위해 수업을 빠지고 극장에 가기도 했죠.

그때 막연히 중국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광동어인지 북경어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은 동경심. 저

▶ 론칭 25년 만에 새롭게 재탄생한 포제션 컬렉션. 주체적인 삶을 사는 현대 여성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행운의 부적 역할을 할 것이다.





2015 바젤월드에서 만난 하이엔드 워치 트렌드

세계 최대의 시계&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 2015가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다. 올해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1500개 업체가 참가했고,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바젤월드를 찾았다. 바젤월드 2015를 통해 살펴본 2015년 시계 트렌드와 주요 브랜드의 신상품을 소개한다.

Writer 이은경(시계 컨설턴트)

스위스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 바젤은 매년 3월과 6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시계 애호가와 예술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3월에는 시계&주얼리 박람회인 바젤월드 때문이고, 6월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과 만나는 국경 지역에 자리한 바젤은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도시지만 예술품 애호가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매년 6월 열리는 아트 바젤은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 이자 미술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견본 시장이다.

바젤월드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주얼리 박람회인 바젤월드는 시계 브랜드들의 1년 치 매출을 결정짓는 큰 장(場)이자 트렌드를 읽는 견본시장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젤을 아트 바젤이 열리는 도시로만 기억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계식 시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바젤을 바젤월드가 열리는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술이 기술을 만난다, 스마트 워치

2015년 바젤월드는 '스마트 워치' 이슈 때문에 시작 전부터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지난해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신상품을 앞다투어 선보이던 브랜드들이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스마트 워치를 속속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MC (월드모바일콩그레스)'에서 스마트 워치를 미리 선보인 브랜드도 있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 워치를 선보인 브랜드는 불가리, 브라이틀링, 프레드릭 콘스탄트, 몬데인, 알피나, 게스 워치 등이다.

태그호이어는 제품을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바젤월드 첫날인 3월 19일 LVMH그룹의 워치&주얼리 부문 회장이자 태그호이어의 CEO인 장 클로드 비버(Jean-Claude Biver)가 구글, 인텔과 스위스 스마트 워치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럭셔리한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태그호이어의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인텔의 기술력,

불가리 스마트 워치 디아고노 E-마그네슘 ▶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손을 잡은 것이다. 이 스마트 워치는 스위스 워치메이킹과 실리콘 밸리의 만남으로, 시계뿐 아니라 ICT업계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의 귀재이자 스위스 시계 산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장 클로드 비버 회장은 최근의 스마트 워치 이슈를 달리는 기차에 비유했다. 그는 “달리는 기차를 보라. 만일 당신이 그 기차에 타고 있다면 기차의 속도는 별로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차에 타지 않고 밖에서 달리는 기차를 바라본다면 기차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스마트 워치는 달리는 기차와 같다. 우리는 그 기차를 탈 것이다. 밖에서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속도감에 절대 기차를 탈 수 없다. 기차를 타고 그 속도를 즐길 것이다. 그러다가 그 기차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계속 그 기차에 타 있을 것이고, 만일 우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차에서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워치라는 기차에 올라탈지, 기차를 지켜볼지는 온전히 시계 브랜드의 몫이다.

합리적인 가격이 대세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도 이번 바젤월드에서 눈에 띠는 이슈다. 여기에는 애플, 삼성, LG 등에서 선보이는 스마트 워치의 공격적인 위협뿐 아니라, 오랜 경기 불황의 영향도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태그호이어다. 5백만원대 이상의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선보이던 태그호이어는 1백만원대 쿼츠 시계를 비롯해 5백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대의 시계가 주를 이뤘다. 아예 ‘우리의 주고객층은 10대와 20대다’라고 규정하고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컬러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카라 델라비안, 데이비드 게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지금 가장 트렌디한 홍보대사를 기용한 것도 젊은 층을 주고객으로 영입하려는 태그호이어의 전략에 의한 것이다. 2014년부터 스위스 메이드 기계식 시계를 선보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스위스는 두 번째 컬렉션으로 볼드 모션이라는 다이버 워치 컬렉션을 선보였다. 300미터 방수에,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의 백케이스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이 시계의 가격은 2백만원대 중반이다. 백케이스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기계식 다이버 워치의 가격이 2백만원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다.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도 스틸 소재의 4백만원대 에뛰어 워치를 선보였고, 크로노스위스도 3백만원대 중반의 타임마스터 컬렉션을 선보이는 등 이번 시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무브먼트의 끊임없는 혁신

가격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됐지만, 정확성과 견고함을 향한 열정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오메가와 롤렉스가 대표적이다. 오메가가 이번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글로브마스터 컬렉션은 브랜드의 가장 진보된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정확성과 시계 제조의 뛰어난 기술력을 대표하는 컨스텔레이션 초기 모델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글로브마스터 각각의 시계는 일련의 독립적인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글로브마스터는 새로운 절차, 바로 일상의 여러 자극은 물론 1만5000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적합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거쳐 인증된 첫 번째 타임피스다.

롤렉스 역시 새로운 모델과 무브먼트를 선보이며 COSC(스위스 크로노미터 인증기관)의 기준보다 더 높은 크로노미터의 정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를 케이스 지름 40mm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였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크로노미터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새 머케니컬 무브먼트인 칼리버 3255가 탑재되었다. 칼리버 3255는 14개의 롤렉스 특허를 포함, 롤렉스의 워치메이킹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무브먼트이다. 이 혁신적

인 무브먼트는 정밀함, 파워리저브, 충격과 자기장에 대한 저항, 사용의 편의성, 신뢰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 신소재의 향연

시계의 성능 향상과 더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신소재를 선보인 브랜드도 많았다. 엘라스토머, Si3N4, 텍사리움 등 생소한 이름의 신소재가 이번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롤렉스는 브랜드에서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혁신적인 오이스터플렉스(Oysterflex) 브레이슬릿을 최초로 선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엘라스토머라는 합성 폴리머 소재가 있다. 오이스터플렉스 브레이슬릿은 견고한 메탈 브레이슬릿과 유연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엘라스토머 스트랩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목한 기술력이 돋보인다. 이 특별한 브레이슬릿의 핵심은 고성능 블랙 엘라스토머로 오버몰딩한 탄성이 매우 높은 메탈 블레이드에 있다.

▲ 롤렉스 요트마스터

Si3N4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Silicon Nitride), 즉 질화규소의 원소 기호이다. 강도가 높고 내열 충격성이 탁월한 고온 구조용 세라믹 소재로 포뮬러 원의 경주용 자동차 부품으로 널리 쓰인다. 하이테크 세라믹보다 더 높은 1450비커(Vickers)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서 크래치에 매우 강하며 면적당 무게가 3.4 g/cm^3 에 지나지 않아 매우 가볍다. 라도는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매트 그레이 컬러의 Si3N4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무브먼트의 브리지 소재도 블랙 알루미늄을 사용해 시계 전체 무게가 단 85g에 불과한 하이퍼크롬 Si3N4를 선보였다.

애플, 삼성, LG, 화웨이 등 스마트폰 업체들의 잇따른 스마트 워치 발표로 인해 손목시계를 선보이는 바젤월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70년대의 쿼츠 파동과 80년대의 오일쇼크 등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탄탄한 자생력을 키운 시계 업계는 스마트 워치에 쉽게 손목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아날로그 감성의 스마트 워치의 등장, 합리적인 가격 정책, 정확성과 견고함에 대한 인증 강화 그리고 신소재 개발 등 2015년 바젤월드에 나타난 시계업계의 명민한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스마트 워치 이슈로 인해 사람들은 시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테고,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년 3월, 스위스 바젤로 향하는 사람들의 관심 또한 커질 것이다.



◀ 라도에서 선보인 하이퍼크롬 Si3N4





파텍필립

칼라트라바 파일럿 트래블 타임 Ref. 5524

파텍필립의 칼라트라바 파일럿 트래블 타임 Ref. 5524 모델은 완벽한 남성용 워치로, 항공기를 통한 우주 정복과 손목시계를 통한 손목의 정복을 확실하게 상징하는 제품이다. 듀얼타임 기능의 이 시계는 1930년대 미국의 공군기 바디 페인트와 닮은 고상한 다크 네이비 블루 래커 다이얼, 화이트 골드 케이스, 라지 사이즈의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와 슈퍼 러미노바로 코팅된 폭 넓은 바톤 스타일 스틸 핸즈 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욱 향상된 기술적인 세컨드 핸즈, 아날로그 데이트 날짜 카운터, 21K 골드 로터로 구성된 머케니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CH 324 S C FUS를 장착했다.



브레게

브레게 트래디션 레피타션 미니트 투르비옹 7087

브레게의 모든 최신 기술력을 한데 집약한 걸작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 방식은 완전히 버리고 시계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10만 가지 소리를 종합한 후 그것들을 음향심리학적 기준을 토대로 제작했다. 해머의 움직임이 시계 무브먼트와 평행을 이루는 대부분의 미니트 리피터와 달리 브레게 트래디션 7087은 베젤 쪽으로 무브먼트와 수직을 이루는 위치에서 치는 것도 특징이다.



블랑팡

빌레레 그랜드 데이트 컴플리케이션

블랑팡은 가장 클래식한 시계 라인인 빌레레 컬렉션 최초로 그랜드 데이트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워치를 선보였다. 다이얼 6시 방향에 두 개의 날짜 창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그랜드 데이트는 지름 40mm의 더블 스텝 베젤로 이루어진 레드골드 케이스, 로만 인덱스가 표시된 오팔린 다이얼, 레드골드 소재의 시·분·초침, 무브먼트의 완성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투명한 크리스탈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백과 진동주의 벌집 패턴까지 빌레레의 시그니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쇼파드

L.U.C XPS 페어마인드

L.U.C XPS 페어마인드 모델의 백케이스, 미들케이스, 베젤은 모두 공정 채굴한 금만 사용해 제작되었다. 공정 채굴이란 그 금이 책임 있게 채굴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광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인증 제도다. 공정 채굴한 금만 사용해 전 세계 250개 한정 생산하는 이 기념비적 모델은 쇼파드가 지속 가능한 럭셔리에 대한 추구, 그리고 윤리적으로 채굴한 금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위블로

빅뱅 유니코 오뜨 조아이에

10억원을 호가하는 주얼리 워치인 '빅뱅 유니코 오뜨 조아이에'는 케이스 지름 45mm에 3가지의 특수 세팅 테크닉이 적용되었다. 투명 세팅, 클로드 파리 세팅, 그리고 레일 세팅으로 화려한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653개의 화이트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653개의 다이아몬드, 바케트 컷 루비로 장식했다. 이 모델 한 피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려 400시간의 R&D와 350시간의 세팅 기간이 필요하다.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의 블루ダイ얼 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본드 가문의 상장(Coat of Arms)이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며, 그 상장은 노란 센트럴 세컨드 핸드 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41.5mm 사이즈의 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시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의 백케이스를 통해 보이는 오실레이팅 웨이트이다. 마치 총의 배럴 모양처럼 잘라낸 이 부품에서 제임스 본드와의 깊은 인연을 엿볼 수 있다. 스테인리스스틸 브레이슬릿 모델로 선보이며 1만5007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 40

롤렉스는 가장 높은 품격을 자랑하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 40을 더욱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에 탑재된 최신 머케니컬 무브먼트인 칼리버 3255는 14개의 롤렉스 특허를 포함해 롤렉스의 워치메이킹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탁월한 정확성이 결합된 크로너지(Chronergy)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했다. 플래티넘과 골드 버전으로만 제작되며, 새로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이 함께 선보인다.



라도

라도 하이퍼크롬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타키미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 기능을 추가해 라도의 스포티한 컬렉션으로 알려진 하이퍼크롬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다. 킬로미터나 마일 등의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는 일체형의 세라믹 모노블럭의 케이스 베젤에 새겨져 있다.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새긴 숫자 하나하나를 화이트 슈퍼 러미노바 처리해 해가 진 후에도 선명하게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ロン진

ロン진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

론진은 콘퀘스트 클래식 컬렉션의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모델,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를 출시했다. 승마 스포츠에 대한 룬진의 열정과 오랜 워치메이킹 전통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케이스 지름 42mm의 크로노그래프는 스틸&로즈골드 캡 케이스로 세팅했다. 셀프 와인딩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L678을 장착했다. 실버ダイ얼에는 슈퍼 러미노바 코팅된 9개의 인덱스를 세팅했으며,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와 우아한 대비를 보여준다.



해밀턴

해밀턴 벤츄라 엘비스80

살아 있다면 2015년 1월 8일에 80세가 될 엘비스 프레스리에게 찬사를 보내는 모델로, 뱅파모양의 삼각형 케이스를 한 상징적인 벤츄라는 1961년 영화 <블루 하와이>에서 로큰롤의 황제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 '엘비스의 시계'로 알려진 벤츄라의 2015년 버전인 이 시계는 주요 기술과 소재에 대한 도전과 진보를 보여준다. 이 오토매틱 모델은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결합한 해밀턴의 자체 H-10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2015 서울 모터쇼 生生 리포트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합성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15 서울모터쇼'가 열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32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에서 370여 대의 자동차를 내놓으며 참가 업체 수나 전시장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였다. 자동차 마니아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현장을 살펴본다. Writer 안상희(조선비즈 자동차담당 기자)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2015 서울모터쇼 현장을 둘러보고 갔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말이다.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태평양을 건너 약 9032km 떨어진 서울모터쇼 전시장. 김용근 서울모터쇼 조직위원장이 바퀴가 달려 움직이는 어린이 키만 한 흰색 커뮤니케이션 기기와 함께 서울모터쇼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시장을 소개하고 있었다. 기기에는 작은 모니터가 달려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와 스콧 헤이슨 슈터블 테크놀로지 CEO의 얼굴이 보였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슈터블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원격장치인 ‘빔(Beam)’을 통해 서울모터쇼를 관람하고 있었다. 서울모터쇼 전시장을 본 뒤 브린 창업자는 “흥미로운 자동차가 많고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차도 많다”고 말했다.

원격관람까지 동원된 2015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Experience the technology, Feel the artistry)’를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모터쇼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차량은 7대, 아시아에서 처음 볼 수 있던 차량은 9대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자동차가 41대였다. 서울모터쇼는 총 관람객 수만 61만5000명으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모터쇼는 IT와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하이브리드차와 모터쇼에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럭셔리·고성능 슈퍼카가 눈길을 끌었다. K5(기아차), 한국GM(차세대 스파크)도 신차를 선보였다. 수입차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 TOYOTA PRIUS V



폭스바겐 골프 GTE ▶



메르세데스 AMG GT ▶



는 특히 올해 한국시장에 선보인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내놓았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자리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수입차 브랜드가 이번 모터쇼에 앞으로 선보일 신차를 대거 공개했다”고 말했다.

효율 높인 스포츠카부터 연비괴물까지, 친환경 자동차 전성시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맞춰 서울모터쇼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첨단 차량이 대거 등장했다. PHEV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결합, 연비를 높인 차량이다. PHEV는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는 전기차로 활용하다가 장거리 운행 때는 가솔린 엔진 차량으로 활용하면 돼 인기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독일차 4인방도 신기술로 무장한 친환경 자동차를 선보였다. 우선 BMW는 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카 PHEV 'i8'을 선보였다. i8은 스포츠카 본연의 운전 재미와 연비 효율성을 갖췄다. i8은 민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같은 신소재를 활용했다. 이 차량은 1.5L의 직렬 3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를 결합해 최대 362마력의 힘을 낸다. 최고속도는 시속 250km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4.4초면 도달한다. 주행 가능한 최대거리는 유럽기준 600km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 AMG는 연비가 리터당 35.7km에 이르는 벤츠의 세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인 S500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전시했다.

아우디는 A3 스포트백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을 전시했다. 이 차량은 1.4 TFSI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 최고 204마력 · 최고속도 시속 222km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7.6초 만에 도달한다.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면 940km(유럽 기준)를 운행할 수 있으며 연비는 L당 66.6km(유럽 기준)에 달한다. 이 모델은 전기모터만으로 최대 50km를 주행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PHEV 모델의 골프인 '골프 GTE'를 선보였다. 이 차량은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는 35.7kg · m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7.6초다. 연비는 유럽 기준 L당 66.6km며 전기모드로 50km를 달릴 수 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로 최장 939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 · 도요타도 친환경차를 전시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도요타는 차체와 실내공간을 확대한 왜건(Wagon · 차 뒷부분을 크게 해 적재 공간을 늘린 차)형 '프리우스 V'를 전시, 판매를 알렸다. '프리우스 V'는 기존 프리우스와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이 동일하지만, 최고출력은 136마력(미국 기준)으로 기존 프리우스보다 44마력 향상됐다. 연비는 L당 17.9km다. 적재용량은 971.4L로 커져 가족 단위 레저 활동에 적합하다. 가격은 3천8백80만원이며 정보보조금 1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요타는 수소연료전지차 FCV 콘셉트카도 전시했다.

이 외에 르노삼성자동차는 연료 1L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괴물, PHEV 콘셉트카 '이오랩'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오랩은 시속 120km의 속도로 60km까지 전기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갖췄다. 현대차는 쏘나타 PHEV를 전시했다.



폭스바겐 GTI 콘셉트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고성능·럭셔리 슈퍼카의 유혹

모터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성능·럭셔리 슈퍼카다. 서울모터쇼에서도 슈퍼카는 단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떨어져 고성능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고성능 콘셉트카도 볼거리였다. 콘셉트카는 브랜드가 미래 개발 방향을 담아 만든 양산 이전 모델이다. 마세라티는 프리미엄 콘셉트카 '알피에리'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차량은 최고 460마력, 최대 53kg·m의 토크의 힘을 낸다. 마세라티 특유의 웅장한 배기음을 선사한다. 마세라티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 뉴욕모터쇼가 아닌 서울모터쇼에 이 차량을 전시한 것은 그만큼 마세라티 본사 차원에서 한국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스바겐은 고성능 차량인 '디자인 비전 GTI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이 차량은 최고출력 503마력, 최고시속 300km의 힘을 내는 골프 GTI의 레이싱 버전이다.

전 세계 한정 판매 차량도 대거 등장했다. BMW는 서울모터쇼 출품 차종에서 국내 판매 차종 중 가장 높은 최고출력을 자랑하는 'BMW M5 30주년 에디션'을 선보였다. 출력이 높다는 것은 차가 힘이 좋다는 이야기다. 이 차량은 최고출력 600마력, 최대토크 71.4kg·m의 강력한 성능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9초면 도달한다. BMW M5 30주년 에디션은 전 세계 300대, 국내 30대 한정 판매되는 보기 드문 차량이다. 가격은 1억6천9백90만원이다.

제구어·랜드로버는 스페셜 비히클 오페레이션(SVO·초고가 고성능 맞춤형 라인)의 F-타입 프로젝트 7,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다. F-타입 프로젝트 7은 575마력의 V8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했으며 전 세계 250대 한정 판매된다. 한국에는 7대가 판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2억5천만원이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은 5L 슈퍼차저 V8을 탑재해 550마력의 힘으로 시속 100km까지 4.7초 만에 도달한다.

벤트리는 국내 판매량이 6대로 한정된 희귀모델 신형 '컨티넨탈 GT3-R'을 전시했다. 이 차량은 3억8천만원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고성능 럭셔리카가 서울모터쇼에 등장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고급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를 국내에서 처음 공개하며 출시했다. 이 차량은 공식 출시 전에 이미 200대 이상 사전계약됐다. 마이바흐 S600은 가격이 2억9천4백만원, 마이바흐 S500은 2억3천3백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올 3분기 출시 예정인 고성능차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T'를 선보였다.

렉서스는 레이싱쿠페 'RC F'를 선보였다. RC F는 5L V8엔진이 탑재돼 473마력의 힘을 발휘한다. 이 차량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5초 만에 도달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 가격은 1억2천만원이다.



BMW M5 30th Edition



마세라티 알피에리 콘셉트카



렉서스 RC F ▶



▲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왼쪽부터) 뉴 아우디 A7, 최시원 아우디 코리아 홍보대사, 권문수 디자이너, 유경욱 팀 아우디 코리아 선수, 요하네스 타마 아우디 코리아 대표, 이진욱 아우디 코리아 홍보대사, 뉴 아우디 A6

리퍼트 대사부터 장혁·최시원·이진욱·박지성 등 별들의 등장

올해는 배우, 가수부터 정·관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서울모터쇼 현장을 방문해 위상을 높였다. 언론을 상대로 ‘프레스데이’가 열린 2일에는 스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브랜드가 많았다. 모터쇼에 참여한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효과를 기대하며 유명인을 앞세우는 전략을 펼치곤 한다.

우선 렉서스는 고성능 스포츠카페 RC F를 선보이며 남성적이고 도시적인 장력을 홍보대사로 초대했다. 아우디 전시관에서는 배우 이진욱과 아이들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각각 A6와 A7을 타고 등장했다. 모터스포츠팀 ‘팀 아우디 코리아’의 유경욱 선수도 아우디 무대에 올랐다. 마세라티 전시장에서는 배우 차승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대차는 올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을, 한국GM은 쉐보레가 후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홍보대사인 축구 선수 박지성을 무대에 올렸다.

개막식이 열린 3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시장을 방문했다. 전시장을 방문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첨단기술이 자동차와 만난 점이 흥미롭고 신차도 많아 재미나게 봤다”며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모터쇼의 ‘카 이즈 아트(Car is Art)’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데일 해로우 영국 왕립예술학교(RCA) 학장도 방문했다. 영국왕립예술학교는 피터 슈라이어 현대차 디자인 총괄 사장, 이안 칼럼 재규어 디자인 총괄디렉터, 고든 바그너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 총괄이 다닌 학교로 세계 최고 디자이너 양성의 산실로 유명하다. 해로우 학장은 “자동차 디자인을 잘하려면 인

간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야

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 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 25년이 걸릴 것이라 당장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지를 미리 이해해야 한다”며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초점을 두라”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곽진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총괄 사장, 올리 슈틸리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김충호 현대차 사장이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 벤틀리 신형 컨티넨탈 GT3-R





1

〈시니어조선〉·캐나다관광청·대한항공과 함께하는 리마인드 허니문

꿈이 이루어지는 곳, 캐나다

캐나다로 떠나는 꽃중년 커플의 리마인드 허니문.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대한항공이 2015년 경이로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캐나다로 독자를 초대한다. 시니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꿈의 여행지 캐나다. 그 벽찬 감동 속으로 뛰어들어보자.

Writer 이은정 · Resource 캐나다관광청

로키 산맥, 나이아가라 폭포, 오로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나라. 맑은 공기와 빼어난 자연경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캐나다. 많은 사람이 천혜의 관광지로 꼽는 캐나다는 젊은 세대에게는 트레킹과 스키, 장년층에게는 폭포와 단풍 구경을 선사하지만 그것으로만 설명하기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자연과 문화, 도시 그리고 어울려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의 민족들이 공존하는 곳,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을 접하고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캐나다이다. 힘든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이 선망하는 곳이자, 시니어들이 배우자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 여행지 캐나다로 떠나보자.



2



3



4



5



6

신의 솜씨에 압도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품은 온타리오 주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자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와 장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품은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5대호 중 4개의 호수와 맞닿아 있고 800km에 이르는 단풍나무길, 캐나다 원주민이 '신의 정원'이라 불렸다는 1천여 개의 섬이 떼 있는 천섬(Thousands Islands) 등 신의 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온타리오는 다민족, 다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이 어우러진 곳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지대에 걸쳐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다. 강 중앙의 섬을 기준으로 말발굽 모양의 거대한 캐나다 폭포와 무지개가 아름다운 미국 폭포로 나뉘는 나이아가라. 미국 쪽에서는 폭포 옆면만 바라볼 수 있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정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폭포를 온전하게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낙하한 물로 인해 높이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가 토론토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름답다. 신이 빚은 대자연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

나이아가라 폭포는 사계절 내내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좀 더 와일드하고 다이나믹한 풍경을 감상하고자 한다면 폭포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혼블로어 크루즈(Honblower Cruise)'나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째로 느끼는 헬리콥터 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로 이어지는 800km에 이르는 단풍나무길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이 절정이다. 수생마리(Sault Ste. Marie)에서 협곡 관광열차를 이용하면 환상적인 단풍이 유리창을 통해 파노라마로 다가온다.

캐나다 대표 도시로 현대 도시의 매력과 고풍스러운 옛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 토론토도 있다. 온타리오 미술관은 조각가 헨리 무어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한 곳으로 유명하다. 바타 슈 박물관은 무어의 1만2천여 절단의 신발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역시 캐나다 최대 박물관다

운 위용을 자랑한다. 세계 최고(最古) 시장으로 뽑힌 세인트 로렌스 마켓도 꼭 들러야 할 명소. 본래 송신용 전파탑을 목적으로 세워진 CN타워는 전체 높이 553.33m로 이질한 전망을 자랑한다. 351m 높이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시내를 360도 회전하며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식사와 시내 전경을 즐기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대자연의 낭만과 고풍스러운 문명이 함께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한국과는 가장 가까운 곳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는 자연과 함께 살고픈 인간의 로맨틱한 감성이 잘 어우러진 도시다. 아름다운 영국풍의 도시 빅토리아는 밴쿠버에서 수상비행기로 4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호수 같은 모습을 가진 이너하버를 품은 항구 도시로 도시 전체가 웅장하고 낭만적 인 세트장 같다. 푸른색 돔형 지붕을 한 의사당 건물과 아름다운 항구, 해변을 따라 들어선 각양각색의 노점상과 노천 카페,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격조 높은 호텔까지 셔터를 누르면 그 자체로 화보가 되는 것.

빅토리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부ച트 가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상적인 정원이다. 고풍스러운 왕국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원래 석회암 채굴장이었던 곳을 한 부부가 정원으로 만든 곳이다. 선큰 가든, 로즈 가든, 재페니스 가든, 이탈리언 가든 품은 이곳은 산책로를 따라 많은 종류의 계절 꽃을 감상하기에 일품이다. 특히 5월부터 8월 사이는 각종 꽃이 절정을 이루며, 토요일 밤마다 펼쳐지는 정원 속 화려한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다. 산책을 마친 후 스콘, 타르트, 초콜릿 등과 함께하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니 잊지 말고 행길 것.

빅토리아 관광을 마친 후 수상비행기를 통해 밴쿠버로 이동하면 지상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웅장한 산맥과 호수, 원시림 등이 파노라마처럼 시선을 사로잡는다. 밴쿠버는 원시림과 도시 문명이 완벽히 어우러진 곳으로 색다른 매

력을 발산하는 곳이다. 밴쿠버를 방문한 사람은 꼭 들르는 명소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Capilano Suspension Bridge)는 높이 70m, 길이 140m의 협곡 사이에 매달린 다리로 이 다리를 두고 산책로와 카페, 기프트 숍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스탠리파크는 밴쿠버 시민의 자랑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심 정원이다. 울창한 침엽수림과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공업지구였던 곳을 재정비해 예술가들의 퍼블릭 마켓으로 탄생한 그랜빌 아일랜드도 가볼 만하다. 시장, 레스토랑, 공예공방, 극장 등이 들어선 이곳은 도심 건물 안의 쇼핑몰과는 달리 오픈된 공간으로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가 나며 활기 넘치는 곳이다. 훈제연어, 소시지, 치즈 등 현지 유명 식재료를 시식하며 둘러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8

1, 2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엄한 풍광. 헬기 투어는 나이아가라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캐나다의 매력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가을 무렵 수생마리 협곡으로 떠나는 단풍 관광 열차를 꼭 타볼 것.

4 세인트 로렌스 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다.

5 협곡 사이에 매달려 이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6 부ച트 가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원으로, 특히 5월부터 8월 사이에 꽃이 절정을 이룬다.

7 빅토리아의 수상기옥촌인 피셔맨즈 와프에서는 가끔 물개나 바다표범 등의 야생 바다 생물이 선착장까지 접근해 먹이를 달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

8 수준 높은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슈메이너스 마을.



7

캐나다 여행의 인락한 동반자 대한항공

안전하고 편리한 캐나다 여행을 원한다면 시니어가 가장 선호하는 국적기,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해보자. 대한항공은 밴쿠버, 토론토 직항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주 운항 횟수를 늘리는 등 캐나다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대한항공 1588-2001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08

여행상품 문의 02-733-7790

대한항공(kr.koreanair.com)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www.helloBC.co.kr)

온타리오 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캐나다 관광청(www.keepexploring.kr)





아만자우(스리랑카)



아만코라(부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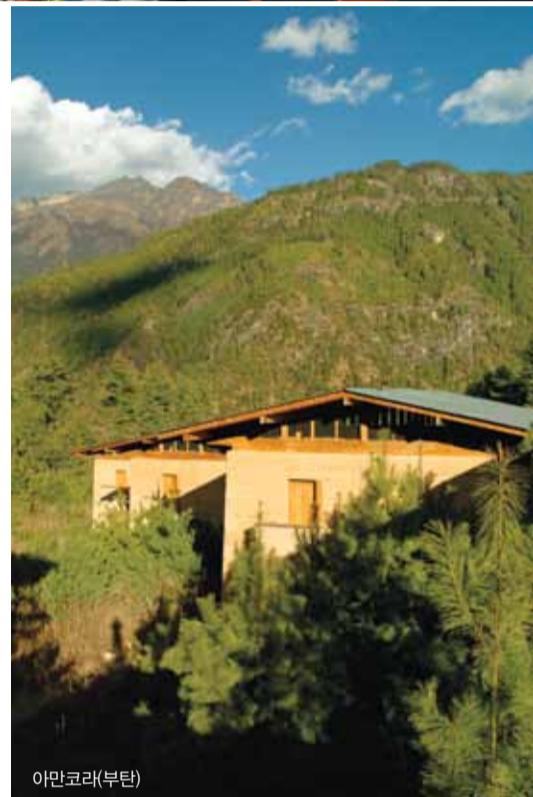
아만푸리(푸껫)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펼쳐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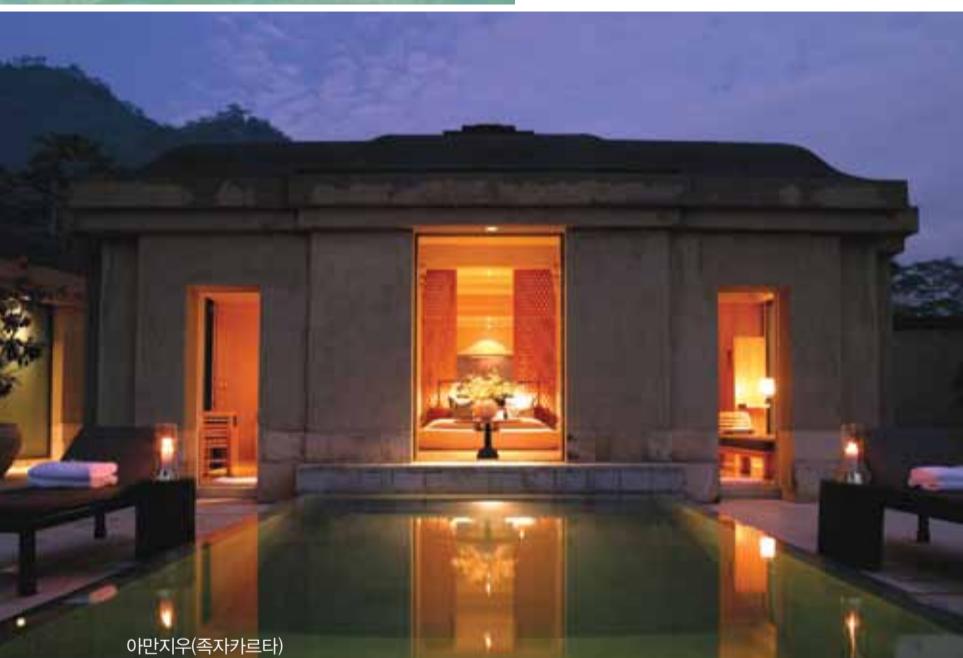
Your Paradise Aman Resort

럭셔리 리조트의 대명사 아만리조트. 아만리조트 투어를 여행 일정에 꼭 넣는 열광적인 팬을 가진 리조트다. 스스로 최고의 서비스라 자랑하지 않지만 모두가 최고라 치켜세우는 곳.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는 그들. 한국 고객을 알기 위해 방한했다는 아만리조트 총지배인 3인을 만나 아만 리조트만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Writer 이은정 · Photographer 장은주(C. 영상미디어)



아만코라(부탄)



아만자우(스리랑카)



아만푸리(푸껫)

“아만(Aman)리조트만의 특별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한 장면이 아니다. 아만리조트 홍보차 방한한 아만 총지배인과 나눈 실제 대화다. 아만리조트는 1988년 태국 푸껫의 판시 해변에 지은 ‘평화로운 땅’이라는 뜻의 아만푸리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28개 호텔을 가진 리조트 그룹이다. 이 세계적인 리조트 그룹 아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 리조트 개척자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또 아만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세계 상위를 차지하는 리조트 기업도 들어간다는 공식도 있다고 한다. 점점 아만이 궁금해진다.

리조트와 자연의 경계

아만리조트가 자리한 곳은 그곳이 어디든 세계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호화롭고 웅장하며 품격 있는 리조트라는 수식어는 아만에게 쓰기에 너무 약소할 지경. 아만에서는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과 태곳적 자연이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의 경계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만에는 마을과 경계가 없는 리조트도 있다. 리조트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 땅을 아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마을과 자연이 어우러져 마치 집에서 머무는 듯한 안락함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

열정 그 이상의 서비스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며 손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라 말하는 아만은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에 방문한 아만의 세지배인은 아만리조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을 알고 싶어 서라 말했다. 아만리조트를 찾는 한국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하려면 한국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의 풍습, 음식, 자연환경과 문화를 알면 더 세심한 서비스가 가능하단다. 아만리조트에는 각 빌라마다 담당 메이드와 주방장이 따로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주방장에게 주면 예쁜 접시에 세팅해서 내준다. 호텔의 품격을 위해, 다른 손님을 위해 에티켓을 지키라는 말은 아만에 존재하지 않는다. 빌라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남 눈치 볼 필요 없는 나만

의 세상이다. 리조트에 인접한 마을에 사는 스태프는 손님이 현지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궁금해하면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간다. 철저하게 손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만의 열정이라 설명한다. 아만의 열정은 리조트의 이름과 설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만은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뜻한다. 그리고 리조트마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아만+α’는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색을 담는다. 푸리는 ‘장소’, 코라는 ‘성지순례’, 지우는 ‘영혼’을 뜻한다. 평화로움은 현실을 떠난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찾는 것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아만리조트는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그 나라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설계한다. 각 리조트의 총지배인이 들려주는 아만의 매력을 만나보자.

문의 더트래블앤레저 02-7577-337 홈페이지 www.thehoneymoon.co.kr



평화로운 공간에 선보인
꿈의 리조트, 아만푸리

프레드릭 바니어(Frederic Varnier)

“아만푸리는 아만리조트 그룹에서 맨 처음 만든 곳입니다. 푸껫 서쪽 판시 해변 언덕에 있는데 태국 아유타 왕족의 평화로운 땅,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원시림에 자리 잡았어요. 리조트에는 모두 40개의 파빌리온이 있는데 모든 파빌리온과 빌라는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아만푸리의 프레드릭 바니어 총지배인은 리조트 이름처럼 조용히 아만푸리를 소개한다. 아만푸리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60%가 세계 각지의 갑부와 유명인사들이라고 한다.

“우리 리조트에는 울창한 코코넛 야자수 사이로 30채의 빌라가 있습니다. 4개부터 6개의 베드룸이 있는 빌라는 각각 독립된 건물로 한 채의 넓은 저택과 같아요. 빌라에는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수영장이 있는데 다른 호텔에서는 공용 수영장으로 쓰일 만큼 큽니다. 아만의 특징인 지역 전통을 살린 살라도 있어요. 이 밖에 별도의 주방과 거실 역시 모두 한 채의 빌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아만푸리의 특별한 서비스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리조트 바로 앞이 안다만인데 계단만 내려가면 초승달 모양의 해변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리조트가 보트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 신청만 하면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보좌합니다. 물론 스노클링, 윈드서핑 같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지요. 해양 스포츠 장비는 무료로 대여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곳,
아만코라

존 리드(John Reed)

“부탄은 국민행복도가 1위인 불교국가이고, 다른 어떤 곳보다 조용한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인도를 접하고 있는 내륙의 나라죠. 히말라야 산맥 300미터 고도에 위치해 있어 이 높은 고도가 각각의 계곡을 형성한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나이기도 합니다.”

부탄 서쪽과 중앙 계곡에 위치한 아만코라 총지배인은 부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했다.

“‘코라’는 부탄어로 성지순례를 의미해요. 아만코라는 이름처럼 부탄의 자연과 문화를 성지순례하면서 각 로지에서 아만코라를 만나도록 조성했습니다. 아만코라는 파로, 팀부, 푸나카, 갱테이, 봄탕을 모두 합친 이름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지요. 파로는 부탄 여행의 포인트로 파로밸리에 자리해 있고, 팀부는 숲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계곡에 있는데 고대 수도승이 살던 사원을 개조해 만든 곳이에요. 푸나카는 부탄의 겨울 수도였던 푸나카 성채사원 옆에 있습니다. 갱테이는 검은목 두루미 겨울 서식지인 빙하 계곡을 지나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두막 형식의 객실에서 계곡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탕은 부탄의 정신적인 중심부에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불교 유적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만코라엔 스파 시설과 편의 시설이 있어 트레킹하는 고객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탄 성지순례의 시작과 끝을 아만코라가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눈앞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
아만지우

이안 화이트(Ian White)

“아만지우는 ‘평화로운 영혼’이라는 뜻으로 가장 넓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중앙 자바 섬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세계 3대 불교 사원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모노레 언덕(Menoreh Hills)에 위치하고 있지요. 500개가 넘는 부처상과 불탑, 회랑과 부조가 호텔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만지우는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멋이 일품인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만의 철학처럼 자연 속에서 가장 세밀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적지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방을 나서면 바로 앞에 프라이빗 풀이 있고 얇은 돌담 너머로 논밭이 펼쳐집니다. 호텔 뒤편에는 활화산이 있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리조트와 자연이 경계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만지우는 자바의 전통 건축을 본떠 지었어요. 실제로 아만지우의 메인 건물은 원형이고, 중심부는 둘 모양이에요. 리조트가 자리한 모노레 언덕과 뒤편에 있는 계곡, 활화산 분화구 4개는 둘 지붕과 함께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만지우에는 36개의 스위트룸이 있는데, 객실은 벽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최고급 객실은 독립된 출입구와 2개의 커다란 원형 별채가 성벽처럼 둘러 있어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자바 섬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안정과 수익을 모두 원한다면?

기준 금리가 1%대에 진입하면서 은행에서 더 이상 목돈 불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시니어들은 설불리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가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1금융권 활용법을 알려준다. Writer 이진호(신한은행 강남대로 PWM센터 팀장)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에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내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1%대에 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약 1.7% 수준이다. 이는 1억을 1년 동안 맡겼을 때 이자로 세후 1,438,200원부터 989,4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인 41.8% 구간인 금융소득자는 은행에 1억을 맡겨도 연 1백만원도 못 받게 됐다.

과거에 은행에 10억 정도를 맡기고 연 4~5천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던 이자소득자는 이제 이자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최소생활비는 월 2백11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2천5백만원 정도로 17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어마어마한 수치다. 또한 재산을 늘려야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돈을 모으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원금 1억을 5% 금리에서 두 배로 늘리는 데는 16년이 걸리지만, 1.7% 금리에서는 46.3년이 걸린다.

이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기존의 정기예금이나 확정금리 상품만으로 재테크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 ELS나 절세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투자상품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금융위기 때 손실을 본 경험도 많고, 이후에 증시 변동성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1%대의 저금리라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제1금융권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원금 손실이 걱정된다면 주가연계증권

연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주가연계증권(ELS)으로도 가능하다. ELS는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된 상품

이며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형을 추천한다. 기간은 3년 이상, 가입기간 중에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 No Knock-in 구조, 3년 만기 시 상환조건은 가입 시 주가의 60% 이상인 상품이 좋다.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ELS 상품 중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금융위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손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원금 보존 상품은 아니지만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5%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실제로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ELS로 투자하는 고객도 있으며, 정기예금의 대체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ELS는 기간이 3년이지만 6개월마다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상환이 되는 구조다. 단, 조기상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 몇 년 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월이자지급식 상품은 은퇴자들이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므로 시니어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2. 세테크를 원한다면 저축성 비과세 보험

1인당 2억씩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보험은 저축성 보험을 추천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은퇴자

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용자산을 펀드로 하는 변액보험보다는 확정금리로 운용하는 저축성보험이 적합하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지급식인 거치식 상품과 이자지급식인 즉시연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먼저 거치식 상품은 대부분의 보험회사 공시이율이 3%대 초중반으로 10년 후에 약 원금의 1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현금흐름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2억을 가입했을 때 10년 후 약 2억6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과세자에게는 정기예금 약 연 3.2%의 효과를 주



고, 41.8% 종합과세자는 약 연 4.7%의 정기예금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10년간 2억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즉시연금은 월소득이 없거나, 은퇴한 이들에게 적합하며 2억을 상속종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매월 50만원 정도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2억씩 가입했을 때 월 1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정기예금이자로 환산했을 때 연 3.5% 이상의 효과를 준다.

3. 은퇴자를 위한 연금예금

은행마다 연금예금이 있다. 은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간은 3

년에서 5년 정도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5년제 상품은 5년간 확정금리 2.15%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60개월 동안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억을 5년제 연금예금에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세후로 1,745,085원을 60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이 상품은 그 자체로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며, 매월 나오는 원리금으로 저축성 보험을 5년간 납입했을 때 10년 후 환급률은 130%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거치식 보험과 비슷한 환급률로, 가입 후 5년 이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양로보험은 10년간 3.25%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립식 보험 중 가장 추천하는 상품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PB센터에서 거래하는 모든 고객 자산의 약 27%가 보험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이 비과세 상품이면서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보험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나, 최저보증이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사진 depositphotos

전통 온천과 명문 골프를 함께 즐기다

고마츠 힐링 여행

1



시니어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일본. 그중에서도 이시카와현의 고마츠는 일본의 3대 정원인 겐로쿠엔과 전통 온천, 골프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다. Writer 이은정

단순한 골프여행, 온천여행에 싫증 났다면 1석 3조 이시카와현의 고마츠를 추천한다. 일본의 혼슈 동해 연안 중앙부에 위치한 이곳은 1300년의 전통을 지닌 온천과 유수의 골프 대회가 열리는 최고급 명문 골프장이 있는 곳. 융복합의 시대는 비단 경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1300년 역사가 전설을 만든 곳

일본 3대 명산 중 하나인 하쿠산(白山) 아래 우리에겐 아직 덜 알려진 이시카와현이 있다. 우리와는 동해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에선 고급 휴양지로 명성이 높다. 2011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노토 지방이 옛 풍경을 간직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시카와현은 인구가 10만 남짓. 에도시대(1603~1867)에 1년에 백만 석이나 되는 쌀을 생산해 '가가 백만 석 문화'를 꽂피우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간직한 곳.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미치지 않아 일본 3대 정원인 겐로쿠엔(兼六園)이 보존되어 있고 가가 백만 석의 풍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만개한 와지마누리(칠기), 구타니야키(도자기), 아마나카 칠기, 가가유전(염색), 가나자와하쿠(금·은박) 등 뛰어난 전통공예와 다도 등의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현이다. 또한 일본의 전통 가이세키 요리가 맛있기로 명성이 높은 '가가 요리'를 비롯해 신선한 어패류, 화과자 등 풍성한 먹거리를 자랑한다. 연평균 15.8℃로 봄가을 라운딩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이시카와현이다. 오래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졌지만 국내에 덜 알려진 이시카와현. 여유로운 힐링 여행을 찾는 시니어에겐 더없이 좋은 곳이다.

46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호시료칸'

신라가 누각이라는 물시계를 처음 만들고, 중국에서는 꽃을 부

끄럽게 만들었다 해서 수화(羞花)라는 별칭을 가진 양귀비가 태어난 718년. 이시카와현 하쿠산 기슭에는 훗날 46대를 이어 전설이 되는 료칸(旅館)이 한 채 들어선다.

"산기슭에서 5~6리 떨어진 곳에 아와즈(粟津)라는 마을이 있다. 그곳에 영힘이 깃든 온천이 있으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파서 중생을 건강하게 하라."

불도를 닦던 대사는 꿈에서 만난 부처의 계시에 따라 온천을 파그 위에 료칸을 짓고 제자 가료(雅亮) 법사에게 그곳을 오래도록 지키게 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로 기록된 호시(法師)료칸의 어엿한 창업기이고 건립자 다이초(泰澄) 대사의 전설이다.

호시료칸은 1981년 프랑스 경제단체가 기업력 200년 이상의 기업에게만 허가해온 국제조직 레 제노키앙(Les Henokiens Asssocciation)에 가입된 일본 내 유일한 전통 료칸으로 바로 이시카와현에 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 즐기는 라운딩

2008년 일본 여자 프로 선수권 대회에서 신현주 선수가 우승하며 우리에게 이름을 알린 카타야마즈 G.C는 이시카와현의 명문 토너먼트 클럽으로 2015년 10월 '일본 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경기' 개최 예정지기도 하다. 이미 2004년, 2008년 두 번의 일본 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 카타야마즈는 지형의 기복을 교묘하게 살려 자연과 골프가 훌륭하게 융합한 코스로 유명하다. '하쿠산 코스 18홀', '일본해 코스 18홀', '카가코스 18홀'을 가진 총 54홀의 클럽이다.

고마츠 컨트리클럽은 매년 9월 고마츠 오픈(Komatsu Open PGA Senior Tour) 대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최고의 코스 컨디션으로 유명한 명문이다.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코스 설계로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문의 제이홀리데이 (02)6349-4949 www.jholiday.kr



2



3



4

- 1 고마츠 컨트리클럽은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코스 설계로 골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2 고마츠 CC의 온천대욕장. CC에는 노천탕, 레스토랑, 살롱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3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시료칸. 전통 목조 양식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4 가이세키 요리는 료칸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제이홀리데이
사진제공



©시니어파트너즈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트트 전문강사 양성과정'

내일은 햄살 가득한 멋진 시니어

현업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은퇴 직후에는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들이 많다.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인생의 기로에 선 시니어에게 희망이 되어준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주)시니어파트너즈 양코르스쿨 '생애재설계 과정'과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시니어 리스트트 전문 강사 양성과정

4기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riter 이은정 · Photographer 한준호(C. 영상미디어)

2500년 전 중국 월나라에 범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범려는 월나라 왕 구천과 함께 오나라에 볼모로 가 어려움을 같이 겪었고 그 후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쥐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공신이다. 인생 1막을 화려하게 성공한 범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토사구팽(鬼死狗烹)을 언급하며 제나라로 떠난다. 제나라에서 범려는 장사로 성공해 큰 부를 쌓는다. 인생 2막도 대성공. 장사로 모은 재산 역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나 또 성공했다는 기록이 사기(史記)에 있다. 인생 3막이다. 지금 범려는 중국에서 상업의 신, 상신(商神)으로 추앙받는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인생 2막을 앞두고 막막해한다. 늘 한 치 앞만 바라보며 사느

라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탓이다. 이럴 때 먼저 은퇴 한 선배 시니어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시니어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시니어파트너즈 양코르스쿨 '생애재설계 과정'과 교육 이수 후 멋지게 새출발한 강사들을 소개한다.

성공적인 인생 2막 (주)시니어파트너즈 양코르스쿨 '생애재설계 과정'

(주)시니어파트너즈 양코르스쿨 '생애재설계 과정'이라면 행복한 인생 2막은 거뜬하게 설계할 수 있다. '생애재

depositphotos



설계 과정'은 다년간의 시니어 행태조사에 근거해 8 가지 영역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경제, 주거, 생활 및 레저, 직업, 건강, 인식, 관계, 계획과 실천. 경제부문은 재무적 노후 준비를 도와준다. 노후 준비 리스크와 대처법, 3층 연금 및 다양한 연금제를 안내하고 자가 경제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재점검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주거는 생활주기 변화를 알아보고 주거 가치 변동과 향후 전망을 함께 고민한다. 또 시니어 적합형 주거 종류를 살펴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귀농·귀촌이나 해외 이동까지 폭넓게 상의할 수 있다. 생활 및 레저에서는 시니어 여가 트렌드와 여가가 삶에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공부하고 시니어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여가 설계 방법을 알려준다.

건강은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토론하며 장수 비결과 실천 방법 역시 배울 수 있다. 직업은 시니어 재취업의 이해와 설계를, 인식은 은퇴와 은퇴 설계 개념에서 시작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장례 유형까지 안내한다. 관계에서는 노후 준비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 사회적 관계 리모델링 전략을 세우고 균형적 사회관계망 관리 전략도 함께 구상한다. 마지막 계획과 실천에서는 노후 준비 계획과 실천 8단계를 통해 균형적인 생애를 진단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께 고민한다.

교육에서 평가, 실습, 강사활동 기회까지 전 과정 지원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앙코르스쿨 강의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생애재설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치롭고 의미 있는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돋는 시니어 전문 교육과정이다. 또 생애재설계 준비를 하는 인생 후배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시니어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기도 하다. 생애재설계 8영역과 창업, 재취업, 귀농·귀촌, 강의 기법 등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 시간은 총 50시간으로 이론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이다.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석, 필기시험, 실기시험, 현장실습을 평가해 강사 위촉 기준을 충족하면 특전이 있다. 앙코르스쿨 전문강사가 갖춰야 할 은퇴 관련 지식과 강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시니어파트너즈 전속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강사 보수 교육을 지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사 프로필 사진촬영과 명함제작을 지원하고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출강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2014년부터 시작된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1기에서 4기까지 모두 47명이 강사로 위촉되어 앙코르스쿨 강사로 활동 중이다.

(주)시니어파트너즈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3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Interview



1만 시간의 법칙,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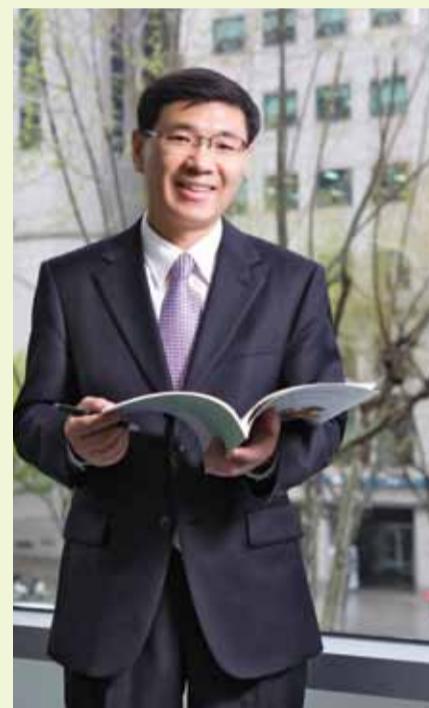
최경환(61세)

기초자치단체장 부단체장 등 37년 공직 근무와 공기업 CEO 경력을 가진 시니어 최경환 씨. 그는 40여 년 직장생활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늘 가슴 한켠에 있었다고 했다.

"제2의 커리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 생각해요. '1만 시간의 법칙'에서 하루 3시간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된다고 해요. 인생 2막도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강의를 들으며 은퇴 준비에서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에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비재무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생 2막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다고.

"청춘'이라는 시구 중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지요. 삶의 열정을 파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인생 2막은 강사로, 인생 3막은 새로운 도전의 삶을 경험하는 '홈 프리(성공이 확실한)' 계획을 가진 그의 멋진 2막이 기대된다.



인생 2막은 새로운 여행

김수일(57세)

30년간 교보생명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김수일 씨.

"보험영업, 지점장, HR, CSR, 경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했어요. 증가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교육사업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은 건강, 일,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요소라 생각합니다. 시니어 리스타트 전문강사 양성과정 중 가장 가슴에 닿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현실을 진단하고 부족한 점은 극복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퇴직한 후 10~15년 이상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점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직장에서 퇴직 후 재정 문제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은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아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관건이라 말한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는 꿈이 큰 소년이다.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누며 토론해 비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니어에게 필요하고 도움 되는 것을 책으로 쓰고 싶고, 전문 강사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 삶이라도 짧을 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배선아(45세)

"전문가들은 인생 2막의 준비는 짧을 때부터 하되 가급적 45세 이전에 은퇴 계획을 세우라 권합니다. 제가 지금 딱 그 나이예요. 인생 1막의 은퇴 시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줄 알아야 은퇴 후 충격도 덜하고 인생2막도 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업에서도 많은 강연을 했고 퇴직 후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시니어를 위한 강의 전문강사는 확신을 들었다고.

"퇴직할 때 결심했어요. '첫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둘째,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셋째, 나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였죠. 그런 점에서 강사라는 직업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친 후 교육생들의 고마운 마음이 전해질 때면 작은 도움을 드렸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배선아 씨는 중장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일수록 관계에 투자하라고 당부한다.

"지금부터 남들에게 투자하세요. 나눔을 실천하면 지금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노후에 200% 이상의 보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 〈춤추는 산과 물〉, 2007, 한지에 수묵담채, 75×142cm

추상과 실경을 넘나든 한국화가 송영방 수묵으로 그려낸 이상(理想)

지난 100년간 한국화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우현 송영방 화백의 등단 55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송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본다.

Writer 이은정 · Resource 국립현대미술관

고즈넉한 먹의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때로는 대담하면서도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고요한 수경에 비친 하늘처럼 은은한 수묵은 우리 화단이 지닌 특별한 매력일 것이다. 송영방 화백은 문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추상과 실경을 넘나들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룩한 한국 화가로 평가받는다. 동양의 예술 정신에 기반을 두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끊임없이 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1961년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화단에 나온 지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한 송 화백은 실경산수, 인물화, 사군자, 추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 세계를 펼치며 한국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데뷔 초기인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수묵을 통한 추상적 실험에 몰두했는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재기 있는 필묵을 구사하며 신선한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이 시기의 작품은 화면 전체가 점과 선의 혼합으로 구성된 전면화의 특징을 보인다. 〈뇌락〉, 〈천주지골〉, 〈운근〉 등의 작품은 바위 등을 통해 자연의 조화를 탐구하고, 형태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정신을 표현하려 했던 동양회화적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등의 실경산수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천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사생기법으로 실제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실경산수화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화풍이다. 그러나 송영방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흥을 실경에 빗대어 표현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이어갔다. 이후 1980년대에는 산수의 구체적 묘사를 생략하고 내재한 이념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제작했는데, 〈산과 물과 구름〉, 〈춤추는 산과 물〉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송영방은 독자적인 이상산수(理想山水) 기법을 구현하고,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수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송영방의 작품은 국내 여러 미술관 외에도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세카이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오채묵향(五彩墨香): 송영방〉

국립현대미술관은 우현 송영방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한국화 부문 두 번째 전시로, 약 80점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는 한국현대미술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1960~70년대 실험성 짙은 추상화 계열의 작품을 비롯해 실경산수, 송영방 작가가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시킨 반추상의 산수화, 그리고 문인의 정취가 배어나는 사군자와 화조, 인물, 동물화 등을 선보인다. 이를 둘 다양한 드로잉 자료를 함께 소개해 작품세계의 원천과 작가의 투철한 예술적 의지를 조명한다. 송영방의 문인화적 발상과 담담하고 소박한 예술세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자연주의적인 한국의 미감을 일깨우고, 나아가 한국화단에 밝은 미래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3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람료 2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

문의 02-2188-6000 홈페이지 www.mmca.go.kr



▲ 〈운근(雲根)〉, 1969, 한지에 수묵, 90×69cm

▲ 〈백련(白蓮)〉, 2014, 한지에 수묵담채, 74×300cm

100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숨은 명작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낸 여자, 〈이영녀〉

시대에 스러져간 여인의 삶은 늘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감자〉의 복녀가 그랬고, 〈테스〉의 테스가 그랬고 〈나비부인〉의 초초상이 그랬다. 여기 또 하나의 아픔이 있다. 탈고한 지 100년이 다 돼서야 무대에 오르는 희곡 〈이영녀〉와 그 주인공이 겪어야 했던 시대와 현실의 무게에 대하여. Writer 이은정

김우진은 대중에게 〈사의 찬미〉를 노래한 윤심덕의 연인으로 더 유명하지만 희곡사에서는 당대 문예사조를 뛰어넘는 극작가로 평가된다. 동시대 작가들이 사회 현상 등 외적인 문제를 묘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내면세계를 극으로 표현했고 자연주의를 뛰어넘어 표현주의에 이르는 선구적인 기법을 구사했다. 시인이자 극작가로서 시 작업이 주였으나 〈정오〉, 〈산돼지〉, 〈난파〉, 〈이영녀〉 등의 희곡 또한 우리나라 극역사에 길이 남는 명작들이다. 특히 〈이영녀〉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당대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각이라는 주제를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다룬 최초의 장막극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주체적 삶을 고민한 최초의 장막극

'커다란 두 눈에 잠긴 정숙스러운 광채와 조화 잡힌 체격, 얼굴을 덮어 누를 만큼 숱 많은 머리칼에는 이성을 고는 청춘의 힘이 흘러넘친다. 굳세면서도 남을 한품에 끌어안아서 어루만져 위안을 줄 듯한 어떤 여성의 독특한 사랑이 넘친다. 동작과 언어에 느지막하고 힘센 일종의 선율이 있다.'

이영녀를 묘사하는 희곡의 지문이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매력과 맵시를 지닌 여주인공이지만, 한눈에도 이 여인이 고단한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 할 수 있다.

전체 3막으로 구성된 이 희곡은 작가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목포 유달산 밑 사창가의 처참한 생활을 고발한 작품이다. 김우진이 탈고한 시기는 1925년 9월 무렵이지만, 1975년 〈연극평론〉이 발굴해 소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저자는 매춘부, 노동자, 재혼녀로 살아가는 이영녀의 삶을 통해 성과 빈곤의 극한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야만 했던 당시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이 작품은 1920년대 문학의 가장 큰 화두였던 빈궁을 소재로 하면서도 여성의 주체적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와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함께 던져준다. 뿐만 아니라 매춘과 가난 등으로 주인공을 철저히 비극으로 내몰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이나 격렬한 극행위를 자제하고, 지방사투리를 적절히 구사하는 등 사실적인 기법으로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립극단, 〈이영녀〉에 숨을 불어넣다

국립극단은 〈이영녀〉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장막극이자 연극사에 길이 남을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희곡이 쓰인 후 세기를 넘기도록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국립극단은 최근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을 테마로 한 기획 공연 〈이영녀〉를 무대에 올린다. 김우진 원작으로 국내 초연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영녀는 남편이 가출하자 생계유지를 위해 창녀로 나선다. 그로인해 매춘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우연히 부유한 기훈남을 만나 잠시 공장 여직공으로 일한다. 그러나 곧 그의 성 노리개가 되어 고통받다가 결국 공장에서 뛰쳐나와 다시 창녀가 되고, 유씨를 만나 동거하지만 그마저도 결말은 아름답지 않다. 〈이영녀〉는 당대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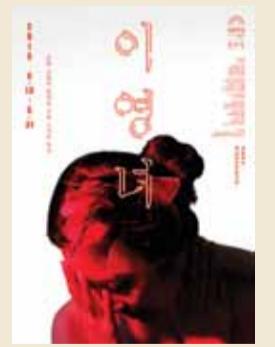
국립극단 기획 공연 〈이영녀〉

국립극단에서는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을 테마로 한 기획 공연 〈이영녀〉를 무대에 올린다. 김우진 원작으로 국내 초연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영녀는 남편이 가출하자 생계유지를 위해 창녀로 나선다. 그로인해 매춘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우연히 부유한 기훈남을 만나 잠시 공장 여직공으로 일한다. 그러나 곧 그의 성 노리개가 되어 고통받다가 결국 공장에서 뛰쳐나와 다시 창녀가 되고, 유씨를 만나 동거하지만 그마저도 결말은 아름답지 않다. 〈이영녀〉는 당대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2002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베스트 3, 2008 서울연극제 연출상, 2011 김상열 연극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쓸 박정희가 연출을 맡았다.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후 3시 공연. 백성희장민호극장.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의 1688-5966



©임영환



사진제공
국립극단

Bulletin

Writer 이은정



JEWELRY

한국제영화제를 위한 쇼파드의 그린카펫 컬렉션

쇼파드의 공동대표이자 아트디렉터인 캐롤라인 슈펠레가 2015년, 황금종려상 60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황금종려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제안했다. 주얼 워치, 링, 이어링 그리고 룸 네크리스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종려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뿐만 아니라 작은 나뭇잎의 걸까지 섬세하게 묘사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문의 갤러리아 부티크 02-6905-3390 / 에비뉴엘 본점 02-2118-6085



FURNITURE



하몰라의 리클라이너 체어

코지폼 2.0

하몰라가 최근 진보된 리클라이너 체어 코지폼(Cozyform) 2.0을 출시했다. 매일 달리지는 신체 리듬에도 언제든 편안한 착석감을 주는 소파 하몰라는 한국공식수입원인 (주)영동가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7850

TRAVEL



캘리포니아관광청, 2015캘리포니아 트래블 미션 성료
캘리포니아관광청은 4월 13일부터 14일 까지 양일간 <2015 캘리포니아 트래블 미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미션은 주요 도시 관광청, 호텔 등 22개 업체에서 총 29명의 관광 시절단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문의 02-777-6665



TRAVEL

클럽메드, '여름휴가 Big Bonus 프로모션'

클럽메드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극성수기 시즌에도 에어파키지 상품을 최대 4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만 4세 미만 아동 리조트 무료 이용권 제공, 5월에 예약 시(6월 이후 출발) 5만 원의 특별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된다. 이 프로모션은 클럽메드 발리, 푸껫, 몰디브 카니 등 베스트 7 리조트에 한해 적용되며, 4월 29일부터 10월 29일 중 출발하는 일정으로 예약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문의 02-3452-0123

BEAUTY



존마스터스오가닉 팻 케어

동물 애호인 존 마스터가 100% 식물 성분 팻케어 세트를 개발했다. 민감한 반려견의 피부 안전을 생각해 화학 성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천연 성분의 풍부한 향기로 동물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피부와 털을 윤기 나게 해준다. 문의 1544-9073

FASHION



버버리, 스몰 엠보싱 체크 가죽 클러치백

버버리가 선물의 달 5월을 맞아 제안하는 클러치백. 고유의 체크가 고급스러움을 더 하며, 클러치백과 크로스백의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송아지 가죽 100%, 1백30만원대. 문의 02-3485-6536

BOOK



결론부터 써라

많은 사람이 학교와 직장에서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쓸 때마다 마감 시간에 쫓겨 억지로 글을 써낸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이어몬드 글쓰기'라는 획기적인 글쓰기 방법을 통해 짧장적 결론과 그 이유부터 쓸 때 논리적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세환 지음, 미래의창, 1만3천원.



사계절 걷기 좋은 서울 둘레길

걷기에 흥미 있는 시니어 독자에게 추천하고픈 책.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북한산 등 서울 둘레길 코스와 성곽길을 따라 걷는 한양 성곽길로, 4대문과 4서문을 찾는 한양도심 순례길 등 서울의 숨은 길을 다채롭게 담았다. 서울 근교 섬·강변길, 서울 근교 숲길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무심코 지나쳤던 보석 같은 길은 보너스. 강세훈·이강 지음, 비타북스, 1만4천5백원.



심장에 가까운 말

2009년 <문학수첩>으로 등단한 이후 독특한 발성과 어법으로 개성적이고 활달한 시 세계를 펼쳐온 박소란 시인의 첫 시집. 도시 빈민의 어두운 일상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따스한 시선으로 어루만지는 시어들이 가슴 깊이 젖어든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독이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곱씹어 하는 작품이다. 박소란 지음, 청비, 8천원.



담론

<김옹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알려진 성공회대학 신영복 교수가 물 흐르듯 풀어내는 인문학적 담론. 2014년을 끝으로 교단을 떠난 그의 마지막 강의 녹취록을 토대로 펴낸 책이다. <시경>, <주역>, <논어> 등의 동양고전을 현재의 맥락에서, 오늘날의 과제와 연결해서 읽는 그만의 독특한 독법이 흥미롭다. 신영복 지음, 돌베개, 1만8천원.

FASHION



투미, 4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1975 컬렉션

투미(TUMI)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1975 컬렉션은 창립 당시의 정교한 장인 정신, 혁신적인 기술, 우수한 기능을 재현한 제품이다. 가죽과 투미 특유의 방탄 나일론 소재로 제작된 리미티드 컬렉션이다. 문의 02-546-8864

WATCH



예거, 마스터 올트라 씬 문

2015년, 흑갈색 슬레이트 컬러의 다이얼로 새롭게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올트라 씬 문은 우아한 라인과 완벽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간결한 디자인과 핵심적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문의 02-6905-3998

MOTOR



BMW 모토라드,

대구 전시장 확장 오픈

대구 동구 공항로에 위치한 BMW 모토라드 대구 전시장은 약 400평에 지상 2층 규모로 BMW 모토라드 국내 전시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속도로 및 대구 국제공항 근방에 위치해 원거리 고객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의 053-954-6161

BEAUTY



꼬달리,

'로즈 드 뷔뉴' 향수 출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인조이 블루밍 스파 패키지'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스파가 포함된 숙박 패키지로 행사 기간 동안 4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문의 02-2218-5777

CAMERA



올림푸스,

아웃도어 카메라 TG-860 출시

TG-860은 전천후 아웃도어 카메라로 수중 15m에서의 원전 방수, 2.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한 충격방지 기능과 방한 기능을 갖추었다. 색상은 오렌지, 화이트, 블랙 세 종류이며, 가격은 36만9천원이다. 문의 02-6002-3500

RESORT



대명리조트,

'파티시에 쿠키' 출시

'파티시에 쿠키'는 대명리조트 소속 파티시에 300여 명이 참여해 개발했으며 피스타치오아몬드,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쇼콜라, 녹차, 콘&아몬드 총 6가지가 있다. 구입은 대명리조트 내 카페와 바이커리, '굿앤굿스' 마트에서 가능하다. 문의 1588-4888

WATCH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1940

3데이즈 GMT 오로 로소 - 47mm

신제품 라디오미르 1940 3데이즈 GMT 오로 로소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단 300개만 제작된다. 5기압(약 50미터 깊이)까지 방수가 되며 레드골드 베를의 갈색 악어가죽 스트랩이 제공된다. 5월부터 현대 본점에 서면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9-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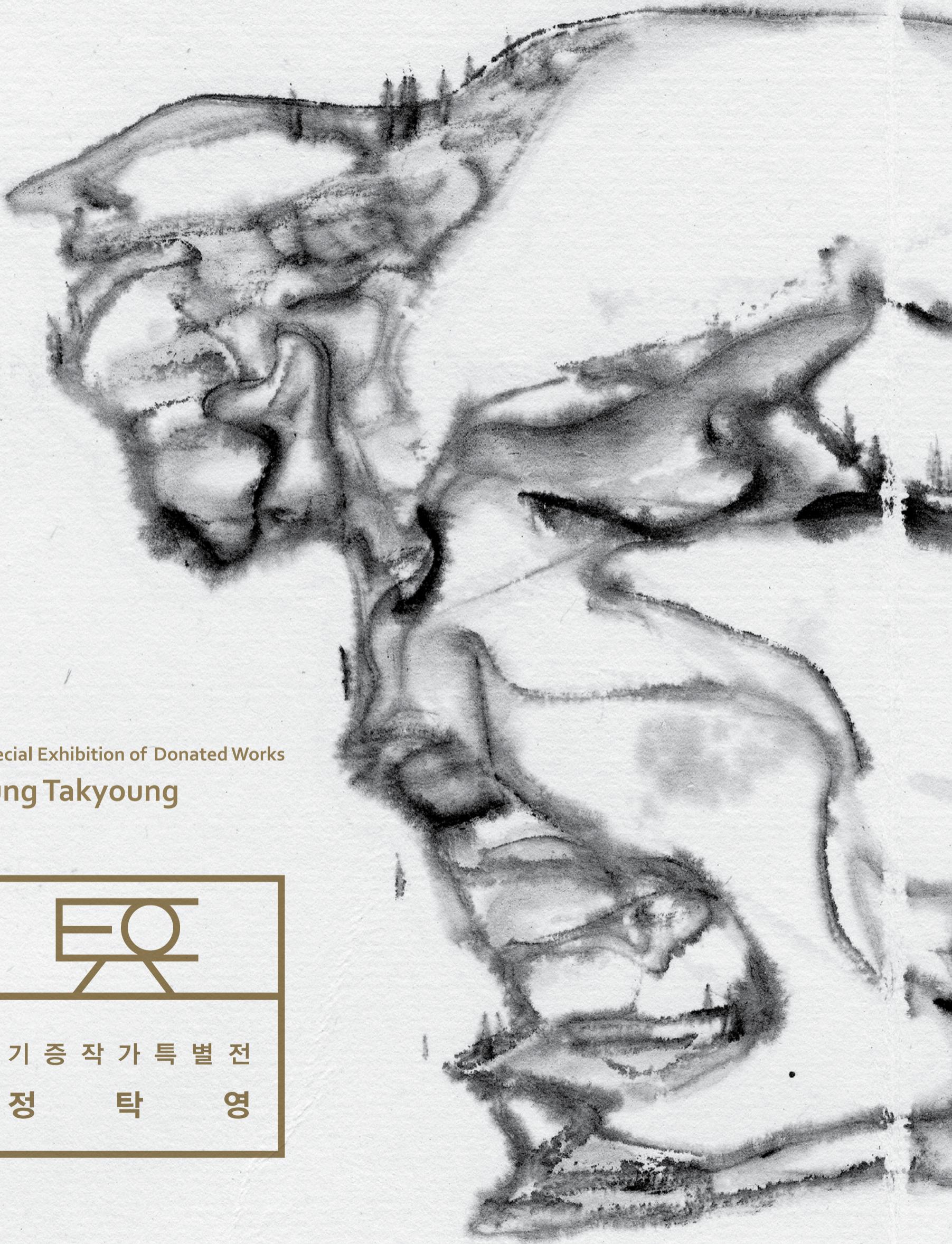
FASHION



에르메네질도 제냐, 특별한

스탈 오브제 '바코' 공개

2015 밀라노 가구 박람회 기간 중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독특한 오브제 '바코(BACO)'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과 사회가 지난 가치를 대변하는 데 의지를 두고 있다. 문의 02-2240-6521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Works
Jung Takyung



기증작가특별전
정탁영



가족 모두 만족하는 여름 휴가 올-인클루시브!

5-10월 출발, 성인 109만원대부터
예약마감 5월 31일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 고급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안락한 객실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